

<신년사>



태권도 내실과

1976년은 태권도의 百年大計를 위한 내실을 다지고 국민총화와 안보를 위한 조
용한 정신혁명에 앞장서는 해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다 같이 협회를 중심으로 노력한 결과 우리의 과제인 태권도의
국기화와 세계화를 위한 섣직한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의 2천년의 태권도 역사보다는 지난 5년간의 역사가 중요하였고
앞으로 닥쳐 올 5년은 그 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제적으로 자랑할 수 있을만한 체모를 갖춘 세계대회를 두번째로 서울
에서 갖음으로서 우리의 힘을 온세계에 과시하였고 또 세계연맹을 통해서 국제
심판강습회와 세계연맹총회를 개최한 것은 태권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
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10월 「카나다」 「몬트리올」에서 있었던 국제경기연맹총회에서의
세계태권도연맹의 가입으로 가라테 등 다른 동양 무술을 제치고 태권도가 세계스
포츠로서 공인되고 세계태권도연맹이 태권도의 세계통할 단체로서 아시아의 본부
를 둔 유일한 국제연맹이 된 것입니다.

정신혁명에 앞장서는 해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김 윤 용

금년에는 처음으로 해외에서 가지는 제 2 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지도자강습, 심판교육, 승단심사, 각종대회는 물론 경기규정의 연구, 호구의 개발, 엄정한 승단심사제도의 확립등 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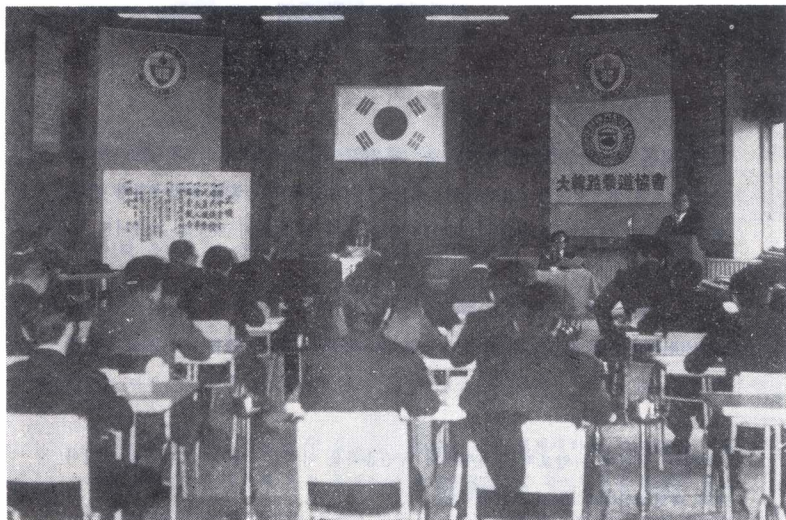
모든 태권도인들이 금년에도 합심해서 내실을 기하고 단결된 전진을 이룩하지 않고서는 「가라테」를 비롯한 동서양 무술 스포츠의 도전과 경쟁을 이겨내기가 힘들 것입니다.

더우기 금년에는 안보적인 차원에서 국민총화를 이룩할 국가적, 시대적 요청이 우리 태권도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태권도인들은 호국의 선봉에서 반사회적, 반국가적, 반태권도적인 부조리를 일소하고 자기의 본분을 다 하므로서 태권도의 세제화와 국민총화 선진에 단결된 힘을 발휘하여 주기 바랍니다.

1975년도 대의원총회

The 1975th General Meeting of representatives



(76년도 사업계획안을 경청하고 있는 대의원들—총회전경—)

대한태권도협회 1975년도정기대의원총회가 1월 17일 오후 2시
대한체육회 대강당에서 막을 올렸다.

중앙대의원과 시도지부 및 학교연맹의 30명중 24명이 참가하고
기술심의회 각급위원장 및 많은 보도진들이 주시하는 가운데 태
권도 75년을 회고하고 76년의 비전을 펼쳐나갔다.

참석한 대의원들은 다음과 같다.

홍정부 성광호 권영욱 이태성 조태일 엄영철 최인범 최
오영 전용하 박부철 진덕영 김 삼 김태웅 박태현 임문규
노상석 홍건표 이한수 정갑순 강정구 유병용 전 철 이
종호 이승학 손석진(무순)

태권도를 국제경기화로 정한 75년은 제 2 회 세계대회, 제 2 차세계연맹총회 및 제 2 회국제심판강습회등 태권도세계화에 주력하여 끝내는 국제경기연맹 가입이라는 빛나는 결실에 흥분의 빛을 감추지 못하였던것도 사실이다.

굳은 결의에 찬 지난해 총회장의 분위기와는 달리 태권도 76년을 설계하는 모든 대의원들의 마음은 태권도세계경기화의 도약의 길로 정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내일의 해로 차분한 총회장의 분위기를 엿볼수 있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운용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75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76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심의와 기타 토의 사항 순으로회의가 진행되었다.



(76년도 사업계획안 통과를 선언하는 김의장)

내일의 도약을 위한 1976년을

김운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해 우리가 다같이 협회를 중심으로 노력한 결과 우리의 과제인 태권도 국기화 태권도세계화를 위한 상당한 전진을 이룩한 해였습니다.』

국제적으로 자랑할수 있을 만한 체도를 갖춘 세계대회를 두번째로 서울에서 가진것은 우리의 힘을 과시하고 또 세계연맹을 통해서 국제심판강습회와 세계연맹총회를 가진것은 전세계와 모든 국민에게 태권도가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므로써 그 만큼 태권도의 발전에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부합니다.



(전철監事の 監査報告)

이어서 10월 『카나다』 『몬트리올』에서 있었던 국제경기연맹과 나란히 정회원으로 다른 동양무술연맹치고 한 발자욱 먼저 가입을 한것은 공인된 스포계에서 세계태권도연맹이 아시아의 유일한 세계연맹본부를가진 연맹으로서 최고의 공인된기구가 된것입니다.

이제 태권도가 공식적으로 올림픽에도 가입할수있는 자격을 가진 공인 무도스포츠로서, 자랑스럽게 대세울수 있는 세계스포츠로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내년에는 비올림픽종목을 종량라한 월드게임과 78년에는 제 4 회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금년에는 여러가지 사업을 펼친가운데 명실상부한 세계스포츠로서 우리의 자랑할 만한 태권도로 내실을 다지고 내일의 도약을 위한 1976년이 되어야겠습니다』라고 전제하고 『더우기 제 2 회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국내지도자강습과 기타 승단심사, 각종대회, 심판교육, 물의 개발 연구등 여러가지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금년에도 합심해서 이와같은 내실을 기하는데 기여하여 줄것을 이자리를 통해 당부합니다

〈1975년도 대의원총회〉

더우기 급년에는 안보적인 차원에서 국민총화를 이룩할 시대적, 국가적, 민족적 요청이 우리 태권도지도자에게 중요한 사명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승단심사를 하고 후배를 키우고 태권도를 세계스포츠로서 내세우는것도 안보적인 차원에서 총화전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역사적으로 조국의 선봉을 우리 태권도인들은 반사회적 반국가적, 반시대적, 반태권도적인 부조리와 자기 주변에 불건전한 기풍을 완전히 일소하는 가운데 태권도의 세계화 또는 중주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는길은 자기 본분을 다하므로 국민총화전진에 모범된 단결과 힘을 과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급년에는 더욱 노력할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전권監事는 監査보고를 하기전에 태권도협회 발전에 기초가 되는 제반 업무에 중점을 두고 監査를 하였다고 전제하며 막대한 업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한 김운용회장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결산 보고

1975회계년도 결산서

예산액 : 1억7백9십2만184원

수입액 : 1억1천2백19만1264원

지출액 : 1억1천4백6십만9천865원

이상과 같은 결산수·지보고에서 타경기연맹에 모범이 되고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인 면에서 시정하였으면 좋겠다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하였다.



(질의에 답변을 하고있는 엄윤규 사무총장)

1. 회계예산에서 편성의 적정을 기하여 예비비, 추경예산등을 편성하여 집행한것.
2.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하여 각종 예산집행에 있어 당파적태를 통하여 집행한 것.
3. 협회와 국기원, 세계연맹간의 회계를 정확할것.
4. 규약 및 운영에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약을 개정하고 운영규정 및 회계규정을 제정비할 것등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강원식사무차장은 1974년도 대의원총회회의초록낭독이 있었으며 1975년도 사업결산보고에서는 승단심사를 총 82회에 26,876명이 응시하여 1,368명이 불합격되고 25,508명이 합격한 것을 비롯 국내의 각종대회와 교육, 제2회세계대회, 제2차세계연맹총회, 제2회국제태권도 심판강습회등의 75년도 사업결산내용을 보고하였다.

1976년도 사업계획심의

1976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1. 태권도인구 저변확대에 따른 일선사범의 자질향상과 2. 국제대회향가로 오는 10월 호주에서 열릴 제2회 아시아대회에 대비한 준비사항과 3. 산하지부및

- 각연맹의 육성강화
- 국가대표선수 훈련강화
- 시범단훈련강화 및 중동, 아프리카, 남미순방계획,
- 일선도장 정비강화
- 확보발전.
- 태권도 전반에 걸친 기술개발을 촉구하였다

주요사업계획의 내용을 보면 승단심사에 있어 1단에서 3단까지를 일반심사로 하고 4단이상을 고단자심사로 구분 실시하는 것이 예년에 비해 달라졌으며 처음으로 국제대회가 제 3국에서 열리게 된 제 2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가 76년도사업계획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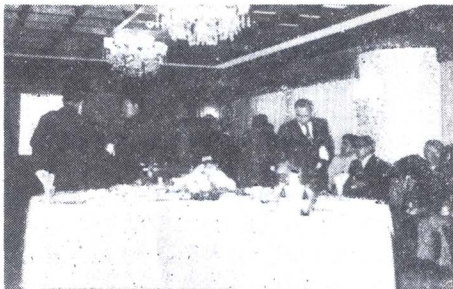
이러한 사업계획에 있어 각 대의원들은 의없이 통과시켰다.

수지예산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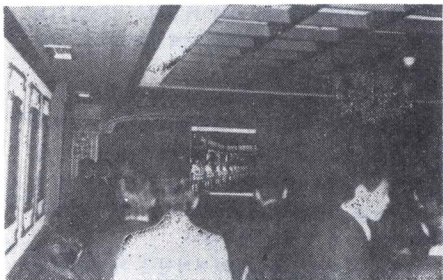
이어서 수지예산심의에 있어 8천5백8십1만9천8백1원으로 책정된 예산은 보조금 4천5백만원을 비롯 3천백만3천8백1원의 찬조금 등으로 수입지부의 숫자가 나타났다. 지출지부에서는 각종대회, 교육, 심사등에 3백여만원씩이 책정되었으며, 비용예산 2천5백여만원외에 한 해의파견 선전예산에 2천여만원이 책정된 것이 76년사업계획 수지예산에 중점적으로 책정되었음이 밝혀졌다.

이어서 토의사항에 들어갔는데, 보조비, 지급에 있어 최인범대 의원은 74년까지 지급되던 시도지부보조비가 지급되지 않는 이유와 76년계획에는 시도지부의 육성을 중요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의에서 업무규사무총장은 회장개인이 74년도에 시도지부에 직접 보조비를 지급하여 75년 예산에는 예상으로 반영하였으나 많은 비용초과로 보조를 못했고 급결에도 제 2회가 많은 예산이 들것을 예상 보조비 지급을 예산에 반영 못한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학교연맹에서는 산하 단체로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많은 경기를 개최하고 학교교사들의 계몽과 일선사범들의 매우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문교시책에 반영, 태권도를 필수과목으로 채택하여 졸업시에는 유단자화는 물론 태권도 장기적인 발전에 있어 국민학교 태권도인구 저변확대에 중점적인 지원책을 강구하여 줄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구체적



(뉴서울호텔 밥부룸에서 열린 다과회)



(다과회가 끝난후 제2회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기록영화 시사회)

인 방안으로 기금 육성에 있어 승품심사시에 국민학교연맹에 보조금을 할당하여줄것을 건의하였다.

이에대한 답변으로 김운용회장은 태권도의 방향제시등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에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며 우리 태권도지도자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일을 하여야 하느냐는 이미 잘 알고있지만 정신적혁명을 통하여 부조리 일소와 능률화를 통해서 힘을 극대화 하여야 한다고 역설하며 건의한 사항은 협회와 충분히 검토하여 시대변천에 맞도록 해결하여 대의원들에게 통보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전용하중앙대 의원이 협회에서 발급되는 단증발급이 한달이상 걸리고 있는데 대하여 3단 이하의 단증은 국기원원장으로서 꼭 싸인을 해야되는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모든 통례로 보아

〈1975년도 대의원총회〉

단층의 친필싸인은 마땅하다고 생각되며 태권도가 세계 무대에서의 권위있는 증명이 된다고 생각할때 할달정도는 빠르게 처리된다고 김회장은 답변했다.

사실강습소에 대한 제반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질문한 김태용대의원의 질문에는 협회의 중요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제일 중요한것이 태권도에 종사하는 여러사람들의 권익보호라 생각할때 도장인가 문제에 대한 법적인 처리방안을 태권도계열을 벗어난 사회문제로 이야기될수는 있지만 우리 스스로 최선을 다할때 좋은 결과나 나올것으로 기대한다면 매년 거론되는 문제점으로 좀더 연구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것이라고 답변했다.

태권도육성책에 대한 입법화방안을 협회에서 검토하였으면 좋겠다는 이금홍국제분과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김회장은 지금 우리 태권도는 입법화 이상으로 국기로서, 나아가 온 세계에 뻗어나갔다고 자부하고 있어 입법화의 방안은 검토할 필요성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노상석 중고연맹대의원은 회장과의 폭넓은 대화의 광장을 자주 갖일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면 좋겠다는 길이에 대해 태권도발전에 대한 좋은 의견을 나눌수있는 대화의 문을 항상

개방하겠다고 김회장은 답변했다.

손석진대의원은 시도지부에 할당되는 태권도지 50부는 대금처리를 면제하든지 할당부수를 제외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줄것과 협회산하중앙연맹과 시도지부산하 각급 학교의 유기적인 연락두절로 파벌 조성의 원인이 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대한 답변에서는 시도지부에 할당되는 태권도지문제에 50부 정도의 할당에 대해서는 성의문제이나 이에대해서는 검토할 것이며 각 시도지부와 시도지부상하연맹관계는 협회와 중앙연맹과의 관계와 같은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가까운 대화의 광장을 마련, 실무자간의 협조사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엄운규사무총장이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전철대의원은 규약개정에 대해 제도적인 면에서 규약수정과 신설 및 삭제사항을 지적하였는데 75년도 대한체육회대의원총회결과에 따라 개정안을 작성 차기 총회에서 제안할것을 결정하고 75년도 대의원총회의 막을 내렸다. 총회가 끝난후 뉴서울 호텔14층 발부분에서 제2회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기록영화 시사회를 가졌으며 다과회가 베풀어졌다.

보내 주신 원고는 최선을 다해 심겠습니다

부디 발전하는 태권도를 위하여 투고하여 주십시오!

1. 종 목 : 논문(태권도의 발전을 위한 내용)수필, 시, 수련기, 사진, 만화, 단편소설등

※ 특히 벽지나 도서지방의 학교소식

2. 방 법 : 200자 원고지 10매 단위로 20매, 30매.

3. 보내실곳 : 우편번호 100 서울 중구 무교동 19번지

대한태권도협회 편집실

1976년도 사업계획안

월	일	사	업	명	장	소	비	고
1	18	제 46회	전국승품심사대회		국	기	원	
2	8 14 14 15 19~21	제 47회 전국승품심사대회 제 68회 전국승품심사대회 (4단이상) 제 68회 전국승품심사대회 (1단~3단) 제 11기 심판강습회	외국인 지도사범 소양교육 전국승단심사대회 (4단이상) 전국승단심사대회 (1단~3단) 심판강습회		"			
3	8~13 14 26~28	제 16회 지도자교육 제 48회 전국승품심사대회 1976년도 전인신인선수권대회	지도자교육 전국승품심사대회 전인신인선수권대회		"			
4	11 17 18 19~21 3일간	제 49회 전국승품심사대회 제 69회 전국승단심사대회 (4단이상) 제 69회 전국승단심사대회 (1단~3단) 제 12기 심판강습회 제 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서우시에선대회	전국승품심사대회 전국승단심사대회 (4단이상) 전국승단심사대회 (1단~3단) 심판강습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서우시에선대회		"			
5	19 15 21~23 4일간	제 50회 전국승품심사대회 제 11회 대통령하사기쟁탈단체대항전 제 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승품심사대회 대통령하사기쟁탈단체대항전 전국소년체육대회		"		미	정
6	13 14~19 19 20 25~27	제 51회 전국승품심사대회 제 17기 지도자교육 제 70회 전국승단심사대회 (4단이상) 제 70회 전국승단심사대회 (1단~3단) 제 2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한국대표선발 1 차전	전국승품심사대회 지도자교육 전국승단심사대회 (4단이상) 전국승단심사대회 (1단~3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한국대표선발 1 차전		국	기	원	
7	4 10~11 24~25	제 52회 전국승품심사대회 제 2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한국대표선발 2 차전 제 7회 주한외국인 및 어자부개인선수권대회	전국승품심사대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한국대표선발 2 차전 주한외국인 및 어자부개인선수권대회		"			
8	8 15 19 20	제 53회 전국승품심사대회 제 2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한국대표선발 최종전 제 71회 전국승단심사대회 (4단이상) 제 71회 전국승단심사대회 (1단~3단)	전국승품심사대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한국대표선발 최종전 전국승단심사대회 (4단이상) 전국승단심사대회 (1단~3단)		"			
9	12 13~18 3일간	제 54회 전국승품심사대회 제 18기 지도자교육 제 57회 전국체육대회 서우시에선대회 제 3회 국제태권도심판강습회	전국승품심사대회 지도자교육 전국체육대회 서우시에선대회 국제태권도심판강습회		"		호주멜	보론
10	16~17 17 23 24 5일간	제 2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제 55회 전국승품심사대회 제 72회 전국승단심사대회 (4단이상) 제 72회 전국승단심사대회 (1단~3단) 제 57회 전국체육대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전국승품심사대회 전국승단심사대회 (4단이상) 전국승단심사대회 (1단~3단) 전국체육대회		국	"	기	원
11	14 19~21	제 56회 전국승품심사대회 1976년도 최우수선수선발대회	전국승품심사대회 최우수선수선발대회		국	기	원	
12	12 13~18 18 19	제 57회 전국승품심사대회 제 19기 지도자교육 제 73회 전국승단심사대회 (4단이상) 제 73회 전국승단심사대회 (1단~3단)	전국승품심사대회 지도자교육 전국승단심사대회 (4단이상) 전국승단심사대회 (1단~3단)		"			

기타 중요사항

- 1) 해외태권도사범파견
- 2) 선수, 임원해외파견 및 초청
- 3) 태권도지 말간(년 4회)
- 4) 태권도 화보발간
- 5) 우수선수 장학금지급
- 6) 해외용 각 국어판발간
- 7) 태권도 기술연구 발표회
- 8) 외국인 초청 특별수련심시
- 9) 해외파견교육실시

김운용 회장 취임 5년간의 발자취

Five Years History of the Korea Taekwondo Association

- ◇...71년 1월 17일 대한태권도협회회장으로 취임한 김운용회장은 재임기간중...◇
- ◇...안 태권도중앙도장, 국기원의 건립이후 3회의 국제대회, 세계태권도...◇
- ◇...연맹창설, 2회의 국제심판강습회를 개최하여 태권도 국기화와 세...◇
- ◇...계경기화의 산파적 역할을 수행, 국제경기연맹에 태권도를 가...◇
- ◇...입시키는 등 그동안 태권도사에 신기원을 이루는 많은 일들을 주...◇
- ◇...도해 왔다. 말보다 실천을 모토로 파묵 실천형으로 정평이 나있는 김...◇
- ◇...회장의 5년간의 발자취를 요약해 보기로 한다.<편집자 註>...◇

71년 취임초 7대공약을 내세운 김회장은 제일 먼저 태권도의 국기화 작업이었다. 다수인구를 거느린 태권도가 역사적 배경으로나 우리 민족이 치한 현실적 상황으로서 범국민적체육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박정희대통령각하**로부터 태권도국기화의 영단을 동년 3월 20일 **국기태권도**의 휘호를 내려주시게 하였다.

다음에는 국내 150만 태권도인구와 세계도처에 산재해 있는 태권도인들의 대화의 광장인 **태권도誌**를 계간으로 동년 4월 15일 첫 창간호를 펴낸 이래 76년 2월에는 지령 18호에 이르고 있다.

세번째로는 **장학 제도**의 실시로 매년 30여명에게 진학의 길을 열어주었으며 태권도인들이

준수하여야 할 **예의규범**을 동년 5월 7일에 제정 공포하여 태권도 기량발전과 함께 정신적수양의 체계화도 확립하였다.

다섯번째로는 태권도종주국으로서의 권위와 세계화의 핵심을 이룰 **중앙도장이 건립**으로 착공 첫 삽을 71년 11월 19일 영동산정에 가져 태권도인들의 꿈과 희망을 부풀게 하였다.

71년 태권도지 창간호에서 김회장은 『모든 태권도인들은 편견과 편법을 배제하고 단결로 태권도종주국으로서의 면모와 실력으로서 국제무대에 걸잡이가 되자』고 당부했다.

이러한 내적인 사업은 세계로 뻗어간 한국의 태권도가 세계의 스포츠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준비작업으로서의 한해를 보냈다.

1972년은 내실과 성장의 해

1972년은 내실과 성장을 향한 태권도의 해로 정하고 대한태권도협회의 편제를 개편 이사회와 기술심의회로 이원조직으로 강화하는 한편 중앙도장 건립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으며 태권도가 축운동을 제창, 태권도인구 저변확대에 힘을 기

우렸으며 국내의 각종 경기에서의 태권도경기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였다.

동년 11월 30일에는 착공 만 1년만에 역사적 개원을 보게된 태권도의 중앙도장을 **국기원(國技院)**으로 명명하고 당시 김종필국무총리등 많

〈특 집〉 <김운용회장 취임 5년간의 발자취>

은 내의 귀빈과 함께 감격의 첫 테이블을 끊어 태권도사에 새로운 章을 펼쳐나가게 되었다.

국기원 건립이후 **승단심사제**도의 단일화로 체계화된 실력과 질서의 확립을 보게되었으며 12월 1일에 **태권도교본(국문판)**을 발간하여 태권도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중앙도장건립과 함께 태권도 세계화의 초석이 될 기초를 다지게 하였으며 세계대회개최의 꿈을 키워나갔다.

국기원 개원식에서 김회장은 『한국의 國技跆拳道』의 면모를 과시하기 위하여 현재 40여개국에 파견되어 있는 해외자본들을 통하여 세계태권도인들을 초청 명실상부한 세계대회를 73년 5월 국기원에서 개최할 것』을 밝히고 『승단심사를 단일화하고 일선사범을 재교육하여 기술면에서도 앞장서는 태권도의 참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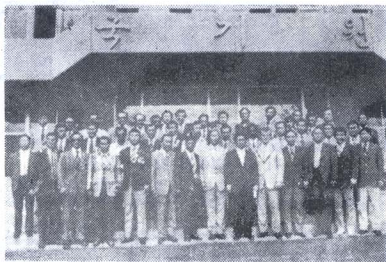
(취임 첫 기자회견을 발표하는 김회장)

제 1 회 세계대회개최와 세계연맹조직

1973년은 기술심의회 8개분과위원회를 10개분과로 세분 강화하여 내일의 영광을 차지하는 오늘의 작업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것을 목표로 제 1 회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준비작업에 몰두하는 한편, 지도자교육 및 심판강습회등으로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에도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동년 5월 25일부터 27일에는 제 1 회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개최 건국이래 세계규모의 국제대회를 첫번째로 개최하여 국기원에는 16개국 20개팀의 161명이 참가한 세계태권도인들의 축제를 성공리에 끝마치고 5월 28일에는 **세계태권도연맹창설**로 임기 4년의 총재직을 만장일치로 김운용회장이 추대되어 한국태권도는 물론 세계의 태권도를 이끌어 나가는 기수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짧은 년륜속에 세계의 스포츠로 승화하는 태권도의 기수로써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장으로의 두드러진 역할을 보여준 가운데 73년을 보내게 되었다.



(세계연맹창립총회후 기념촬영 왼쪽에서 여섯번째가 김회장)



(주한 외국인 대회에서의 개회사)

내실과 자질향상을 목표로한 74년

『1974년은 중주국으로서의 内實과 우리 스스로의 자질향상을 목표로 대동단결하여 태권도를 세계의 스포츠로 토착화하는데 주력할 것』을 밝힌 김희장은 2월 15일에는 대한체육회부회장 및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부위원장에 선임되었는데 세련된 외국어의 실력은 물론 그동안 태권도 발전에 보여준 뛰어난 역량을 인정 한국스포츠의 세계화에 국민이 거는 기대를 감당해내야했다.

동년 5월 15일부터 18일까지는 제 1 회 국제 ↓



(대한민국체육상 대통령상을 수상한다)

거름 닦아지고 있었다.

이에앞서 4월 17일에는 리빈스 미체육회(AAU)회장을 국기원으로 초청 스포츠외교의 커다란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4월 23일에는 체육인들의 최대의 영예인 제12회대한민국체육상인 대통령상 공로부분에 김윤용회장이 수상 받았는데 『내실과 창조의 자질을 다지고 세계의 스포츠로 태권도를 발전시켜 나갈바름』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동년 7월에는 세계일주의 여정에 올라 유럽 및 미주의 태권도현황은 물론 한국스포츠외교의 발판을 굳히기 위한 구상으로 현지 사범들은 물론 각국의 스포츠관계인들과 협의 급변하는 국제스포츠교류에 대처할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하게 되었다.



(리빈스 미 체육회장과 함께 기념촬영)

태권도심판강습회를 열어 국제경기로서의 확고한 기반을 다지기 위한 작업으로 세계각국에서 모인 사범들과 국내사범들이 모여 교육에 참가 2명의 1급국제심판원과 33명의 2급국제심판원, 3명의 3급국제심판원을 배출 태권도세계화에 한

제 1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대회

10월 18일부터 20일에는 73년 제 1회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이후 지역연맹의 첫번째 국제대회인 제 1회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를 국기원에서 개최 10개국에서 입원 선수 92명이 참가한 아시

아태권도인들의 축제를 성황리에 마쳐 앞으로세계태권도연맹을 모체로 한 지역연맹결성은 물론 지역대회개최에 기반을 마련하였다.

11월 25일에는 자유중국태권도협회회장의 초청

으로 1주년을 방한 양국간의 우호증진에 기여하였으며 12월 16일에는 제 1 회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출전하였던 한국대표선수들이 자유중

국을 원정 2차에 걸친 친선 경기를 가져 그곳태권도발전은 물론 국위선양에 이바지하였다.



(재임 기간 동안 펴낸 각종서적(태권도지, 영, 국문교본, 5개 국어 팸플렛)

대한올림픽위원회 명예총무겸임

12월 4일에는 공석중이던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명예총무에 선임 부위원장직과 겸임으로 일하게되어 한국스포츠의교에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했다.

이에 앞서 11월 29일에는 세계태권도연맹실행

위원이며 미언론계의 실력자인 잭·앤더슨(Jack Anderson)씨를 국기원으로 초청 태권도세계화에 대한 전망을 설명하는등 태권도 미래의 발전과 한국 스포츠의교에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기위한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

1975년은 태권도 세계경기화의 비전의 해

1975년 1월 12일 대한태권도협회회장으로 재선된 김윤용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도자강습, 기술개발, 승단심사의 철저를 기해야 어느 종목보다도 우리나라의 민족경기로서 국제성이 있는 세계의 스포츠로서 승화시키는데 한 마음 한 뜻으로 태권도 발전에매진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75년을 태권도가 세계의 스포츠로 승화할것인가? 그렇지



(이태리에서 열린 N.O.C—I.O.C연석회의에서)

<특 집>

<김운용회장 취임 5년간의 발자취>

않으면 한낱 동양의 무술로서 방황하고 말 것인가에 대한 평가로써 김회장의 굳은 결의는 태권도지 15호 신년사에서 표명한바 있었다.

2월 5일에는 세계태권도연맹 실행위원이며 미

하원의원인 존·엠·머피(John M. Murphy)씨의 방문을 스타트로 제 2회 세계대회를 앞둔 스포츠외교의 다각적인 자세로 대처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나갔다.

IOC-NOC연석회의 한국대표로 참석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이태리 로마에서 개최된 제 7차 N.O.C 및 I.O.C연석회의에 한국대표로 참가 98개국 281명이 참가한 스포츠의 유엔총회에서 세계적인 체육인사들과 활발히 접촉 3개월을 앞둔 제 2회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참관하여 줄것을 약속 받았으며 미올림픽위원장 필립·오·클렘씨 당시 국제경기연맹의 오스카스테이트사무총장 및 보비·나이두 국제스포츠기자협회 사무총장들을 한국으로 초청 한국스포츠외교의 새로운 대화의 장을 전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로 하였는데 소련 민스크에 태권기를 휘

날릴수 있는 최초의 시도도 김회장의 숨은 공로라 할 것이다.

귀로에서는 유럽주재 각국사법들은 물론 미주 지역의 사법들과 폭 넓은 대화의 광장을 마련그들의 국위선양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태권도 세계화에 보다 넓은 미래를 약속하기도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유럽원정 한국대표선수단을 결성 유럽의 각지를 순회케하여 친선경기와 시범경기를 전개시켜 태권도종주국의 우위성을 유럽지역에 재인식 시킨바 있다.

제 2 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열린 제 2회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30개국의 임원, 선수 252명을 비롯 800여명의 외국취빈 및 견학단이 태권도종주

국을 방문 축제를 벌임으로서 전국이래 최대의 국제적인 스포츠의 행사를 2년만에 다시 갱신하는 기록을 수립하는 성과를 올렸는데 150만 태

권도 가족은 물론 온 국민과 함께 박정희대통령각하로 부터 대회메지기를 전달받기도 하였다.

이에 앞서 열린 제 2회 국제심판강습회에서는 83명의 국제심판을 배출함으로써 태권도세계화에 더욱 확고한 기반을 다졌으며,

제 2차 세계연맹총회에서는 35개국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주도 면밀하게 회의를 주재 국제스포츠회의의로서도 가장 큰 규모와 짜임새있는 총회를 마쳐 기대이

상의 효과를 보았다. 이 자리에서 의장으로 회



제2회 세계대회를 앞두고 환담하는 김홍재(좌는 오스카스테이트 前G.A.I.F사무총장 우는 보비나이두 국제 스포츠 기자협회 사무총장)

의를 주재한 김회장은 능숙한 외국어의 실력으로 태권도 78년까지의 계획을 관철시키는 역량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회의를 참관한 당시 오스카·스태이트 국제경기연맹사무총장과 보비·나이두 국제스포츠기자협회사무총장은 100회 이상 국제규모의 회의와 대회에 참석한 이불의 평에

서 총회와 대회의 진행은 국제대회 규모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평가받기로 하였다.

이에따라 국내 언론계에서는 10월에 있을 국제경기연맹총회에서 태권도의 회원가입을 낙관하기도 하였다.

국제경기연맹 (GAIF) 가입

10월 4일부터 9일까지 열린 G.A.I.F.연례총회는 캐나다몬트리올에서 개최 60개의 세계스포츠연맹 대표들이 모인 스포츠계의 유엔총회에서 보고사항으로서 끝나는 것으로 판단한 가입절차는 의외의 반발로 유럽각국의 불만서제 각급 대표는 물론 국제유도연맹회장인 퍼머씨의 극성에도

불구, 그동안 착실히 닦은 세계스포츠인사들과의 교류와 능수능란한 외교적수완은 끝내 만장일치로 태권도를 정회원으로 가입시키는데 성공 76년 한국스포츠의교의 최대의 승리의 쾌보를 띄웠다.

76년은 내일의 도약을 위한 웅비의 해로

76년 1월 17일 대의원총회에서 명실상부한 세계스포츠로서 우리의 자랑할만한 태권도로서 내실을 다지고 내일의 도약을 위한 웅비의 해로 주력할 것을 밝힌 김회장은 지난몇해 동안의 태권도발전을 돌이켜보며 올림픽광장으로 향한 험난한 여정을 헤쳐나갈것을 밝혔다.

1월 30일에는 오스트리아 인스브르크에서 개

최되는 동계올림픽과 IOC·NOC연석회의에 한국회의대표로 참석하여 각국의 체육계인사들과 만나 한국스포츠가 추진하는 중동 및 동구권 비동맹국가들과의 적극적인 스포츠교류를 강화하였고 유럽의 태권도현황을 살펴보고 2월 16일 귀국하였다.

내일의 도약을 위한 오늘의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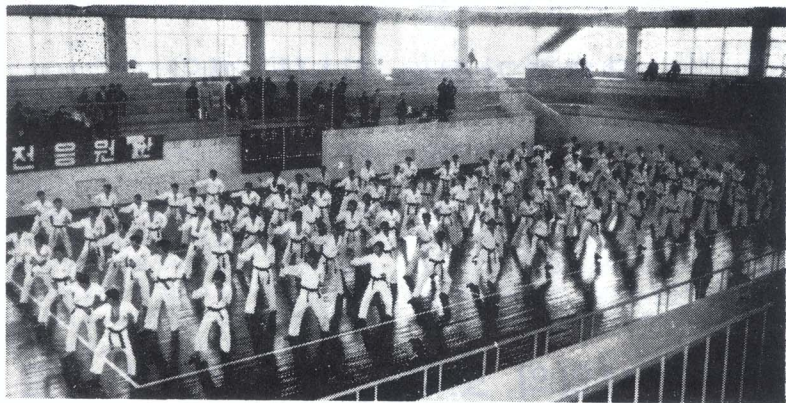
76년 1월 17일로 취임 만5돌을 맞는 김운용회장은 태권도국가화에서 부터 태권도세계화까지의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묵묵히 전진을 거듭하여 왔다.

더우기 태권도발전뿐 아니라 한국스포츠발전

에노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 내고 있는 김회장의 마음은 우리 모든 태권도인들과 함께 세계로 뻗어간 태권도가 깊고, 높게, 그리고 영원히 매아리 칠것에 조금도 의심함이 없이 다같이 노력하자.

제15기 지도자 교육

The 15th Instructor Training Course



(품세 교육에 여념이 없는 수련생들)

15기를 맞는 지도자교육이 구랍 15일부터 20일까지 영하의 기온속에서 1주일간 118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기원에서 열렸다.

75년도 마지막 교육인 이번 교육은 72년 4월 제 1기 지도자교육을 시작한 이래 그동안 2000여명의 지도자를 배출하여 종주국태권도발전에 큰 간을 이루워왔고 세계화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원동력이 되었다. 경기인구저변확대, 경기력향상은 물론 해외로 뻗어간 이들은 길고, 높게, 그리고 영원히 태권도의 구름소리가 메아리 칠수 있도록 공헌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태권도의 역사, 협회의 기능, 전방에 관하여 협회임원들로 구성된 강의와 외부초빙강사들의 체육적 일반이론 및 시사등에 이어 각종 규정, 품세 수련으로 1주일을 보냈다.

영하의 기온속에서도 교육에 참가한 수련생들의 높은 수강열은 회를 거듭할수록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연령층이 젊어지고 있다는 점이 이번

교육에서 완전히 나타났으며 이들의 학력수준도 높아졌다는 점이 특기할만한 사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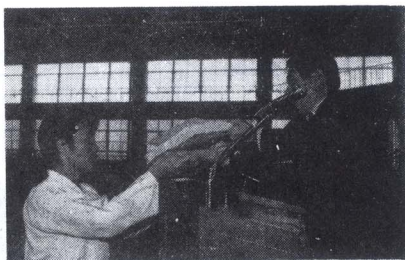
특히 필기시험에서 정진국, 주광철, 신상은 서정호수련생이 각각 만점을 획득하였고 나머지 수련생들도 우수한 성적으로 자격증을 획득하여 만점의 득점자를 4명이나 배출한 회도 처음있는 일이었으며 가장많은 합격자를 내는 기록도 15기가 차지하는등 지도자교육의 소기의 성과가 본 회도에 올라앉음이 증명되었다.

1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20일 정오에는 수료식이 거행되었는데 김운용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교육에 임하여준 수련생들을 격려하며 『75년의 뜻깊은 일들중 가장 큰 우리의 사업은 제2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성공리에 마친것과 국제경기연맹에 가입으로 태권도가 세계무대에 발진한 것은 우리 모두가 기쁘게 생각하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노력이 국기태권도를 양성하는 학교전립의 기초작업』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이

곳에 모인 지도적 위치에 있는 여러분들은 민족이 요구하며 국가가 요구하는 올바른 지도자의 像을 가지고 유아독선적이지 않고 조직적이며 향상된 체계화로 후배들을 지도하는데 있어 연구를 소홀히 하지 말고 우리 자체의 정신적혁명을 통해 총화단결하여 편파적 아집을 버리고 국력의 배양, 국가의 보위라는 커다란 사명감을 갖고 계속 정진할것』을 당부했다.

이날 수료식에서 박태현수련생이 수료증을, 홍재환수련생이 자격증과 장용무수련생이 기념패너트를 김운용회장으로 부터 각각 수여받았다. 또한 양동기수련생은 기념품으로 국기원에 석유난로 2대를 기증했다.

지도자교육은 묵묵히 정진하는 태도로 참여하는 마음 가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인정하며 이



(자격증을 수여받은 홍재환수련생)

에 대한 자부심과 지식, 인격이 함양된 올바른 지도자의 배출이라는 커다란 命題에 어긋남이 없이 우리 모두 노력해야할 것이다. 합격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합 격 자 명 단

강신익	이봉춘	황진수	조오덕	조항동
심명구	구양술	조한수	김준용	김춘근
김인작	금동춘	안재기	조복수	박영길
박문식	정진국	강경철	이상선	홍재환
구정희	송용석	김영수	임춘식	윤주오
권성하	박운찬	정태구	전판선	박태현
김기을	임호원	이재혁	하광덕	양동기
허영	박정오	이충재	오병천	김정길
정경학	고윤복	이동필	이성택	박비철
김삼	이신재	연재웅	이영우	신상운
이정원	강정민	조신행	이종명	김태중
김용호	변자섭	전정수	문만수	서정모

이월필	정동진	우근혁	이태성	장인수
주광철	조승곤	박정규	차종길	김대성
조재득	안영고	명노형	강영복	이양구
오영옥	김대용	김갑동	유영규	신장식
최홍섭	안성훈	노규선	조순환	한상규
임종남	김대준	성정환	김순서	박임주
장용무	이정열	박익규	채수금	최기근
윤희환	박정현	안두전	조찬정	박희문
김준수	강란구	이치원	이근수	이순홍
강명기	김용섭	박종량	이달문	장성옥
최봉영				

태권도

76
제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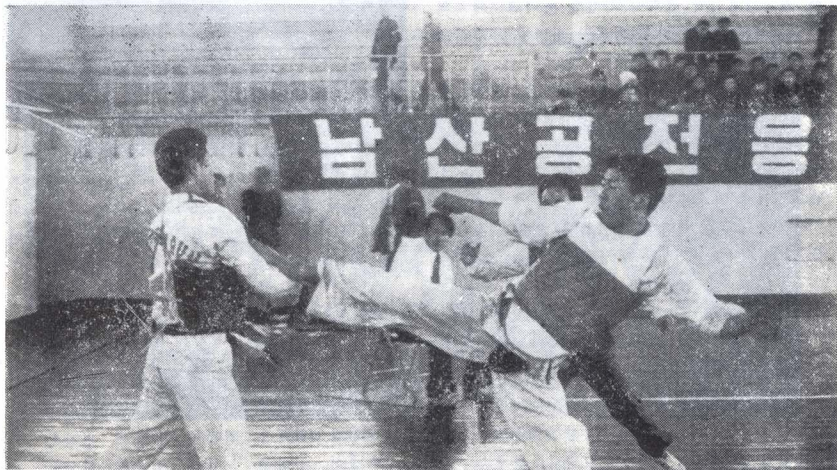
<표지 설명>

76년의 태권도 청사진을 펼치는 1975년도 대의원총회전경이다. 그동안 권도인들의 노력으로 세계로 뻗어간 태권도는 알차게 뿌리를 토착화하고 있다.

금년에도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러한 많은 일들을 정신적혁명을 통하여 착실히 이룩하기를 기원한다……표지촬영 <金永煥>

1975년도 전국 태권도 우수선수 선발대회

The 1975th National Taekwondo Championships



(쓸쓸한 관람석과는 달리 열띤경기에 추위도 잊은듯 열전을 벌이고 있다)

1975년을 종결산하는 전국 태권도우수선수권 선발대회가 구랍 12월 20일과 21일 양일간 국기원에서 개최되었다.

75년초 신인선수권대회이후 협회가 주최하는 각종 대회에서 3위이상의 입상자에 한하여 출전할수있는 이번 대회에는 국기원 내부수리로 다소 경기일자가 연기되어 각급학교에서는 방학으로 선수 참가가 부진하였다.

그러나 군선수와 일반선수 및 교고선수들이다 수 참가한 가운데 영화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90명의 선수들이 75년의 왕좌를 차지하기 위하여 적마다의 기량을 최대로 발휘 열전을 벌였다.

20일 첫날에는 오후 1시 입장식을 갖었는데 김운용회장은 개회사에서 『태권도사의 75년에서 제 2회 세계대회와 국제경기연맹가일』을 상기하면서 『여기 모인 선수들은 이제 우리의 무대가

세계의 무대로 비약하여 제 2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와 77년의 월드게임, 78년의 제 4회 세계대회를 앞두고 종주국 선수다운 기술의 우위, 정신의 우위로 더욱 더 노력하여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선수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치행된 경기에서는 중기부핀급 김형주(체육고)선수대 정재균(일반)선수가 A코트, 박문식(인천 체전)선수대 김근철(전주해성)선수가 B코트에서의 경기를 스타트로 43게임을 치렀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중기부 웰터급까지 준결승을 마쳤다.

21일 2일째에는 오전 10시부터 경기가 속행되었는데 중기부핀급에서 박문식(인천체전)선수대 강현일(영등포중)선수의 결승전은 연장전까지 몰고 가 추첨에서 박선수의 승리로 끝났으나 중학교선수로서 결승까지 올라온 강현일선수는 앞으

로의 대성할 소질을 엿보였다.

중기부 푸라이급에서는 김종기(체육교)선수가 하석광(천호상전)선수를 맞아 치열한 접전 끝에 승리 대망의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중기부 페더급에서도 박원(육군)선수는 이진표(체육교)선수를 관정으로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는데 74년 제 1회 아시아 대회의 한국대표선수로 출전하였던 박선수가 군에 입대하여 최우수선수로 선발 한것 기쁨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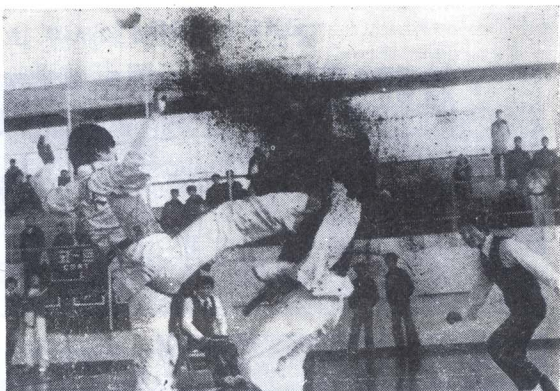
한편 헤비급에서 김정식(육군)선수는 양천석(성동상전)선수를 맞아 1회전에서 싱거운 기권승을 거두었다.

고기부 핀급에서는 이상순(육군)선수는 김성진(인천체전)선수를 맞아 별다른 공격도 퍼지 못하고 연장전까지 물고 갔으나 타임업 몇초를 남겨놓고 이선수의 주먹지르기가 득점과 연결 힘겨운 우승을 차지하였다.

라이트경기에서는 유영합(육군)선수대 김범수(성대)선수의 대결로 양선수는 별다른 공격을 퍼지 못한채 유선수의 관정승으로 끝났는데 뒤돌려차기가 주무기인 유선수의 공격찬스를 좀처럼 허용치 않은 김선수도 만만치않아 제 2회 아시아 태권도선수권대회 한국대표 선발전에서는 경량급에서 혼전을 벌일것이 예측되고 있다.

이날의 경기에 최대 하이라이트는 웰터급의 김철환(육군)선수대 강익성(성대)선수의 대결로 제 1회 세계대회와 제 1회 아시아대회, 유럽원정의 화려한 캐리어를 갖고있는 김선수가 제 2회 세계대회 한국대표선수선발에서 탈락 자괴의 노력 끝에 대망의 금메달을 획득 재기의 기쁨을 감추지 못했는데 비교적 세련된 기술을 보여주며 경기를 운영하였다.

이날의 마지막 경기인 헤비급에서 안장식(육군)대 안규현(해군)선수의 대결은 군선수끼리의 대결로 응원에 열중하는 관중들과 이들을 지켜



(고기부웰터급 준결승전 김철환의 공격을 최건성선수가 앞차기 로견제하고 있다. 이 경기에서 김선수가 승리를 하였다)

보는 코치들의 마음을 초조하게 하였는데 막상 막하의 열전으로 연장전까지 끌고간 두선수의대전은 좀처럼 공격찬스를 포착하지 못하고 경기장을 뒹돌며 안장식선수의 근소한 득점차로 마지막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특기할만한 사항은 군팀이 중·고기부중 10체급을 석권하여 강세를 보였는데 육군선수가 6체급을, 해군선수들이 4체급을 차지한것은 조직적인 훈련의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전체적인 경기내용을 분석하여 본다면 제 2회 세계대회에 한국대표로 출전한 선수들이 유영합선수를 제외하고는 출전을 못하여 최우수선수선발전이라는 점에서 볼때 다소 위축된 감도 없지 않으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투지를 보인 선수들의 사기는 높게 평가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기술적인 발전은 담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것이 안타까운 실정이나 중기부웰터급의 유영합(체육교)선수의 뒤로 물러나며 짧은 뒤돌려차기는 비록 준결승에서 제체패를 당하고 말았으나 기술개발이 시급한 경기력향상에 한가닥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체급별 우승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경기상보>

금메달의 얼굴들



중기부(좌로부터)

핀 급 : 박문식

푸라이급 : 김종기

뺨 탐 급 : 박오성

페 더 급 : 박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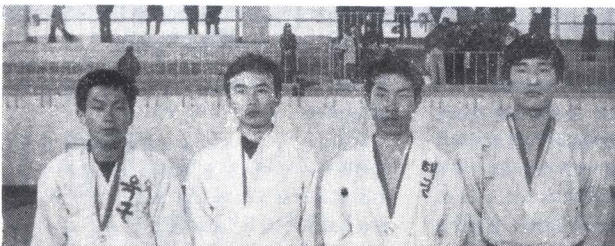


라이트급 : 박연환

웰 더 급 : 한광열

미 들 급 : 오형선

해 비 급 : 김정식



고기부(좌로부터)

핀 급 : 이상순

푸라이급 : 김제홍

뺨 탐 급 : 이철주

페 더 급 : 유길환



라이트급 : 유영환

웰 더 급 : 김철환

미 들 급 : 박인덕

해 비 급 : 안장식

제1회 연세대학교총장기쟁탈 전국고등학교 태권도선수권대회

The 1st High school Taekwondo Competition for Yon Sei University Deans fag

체육고등학교 우승

연세대학교 창립90주년기념 제 1회연세대학교
총장기쟁탈 전국고등학교태권도선수권대회가 75
년 11월 18일, 19일 양일간 연세대학교체육관에
서 개최되었다.

연세대학교주최, 대한태권도협회와 중고태권
도연맹 및 연세대학교태권도OB회가 후원한 이
번 대회에는 13개 고등학교에서 81명이 참가하
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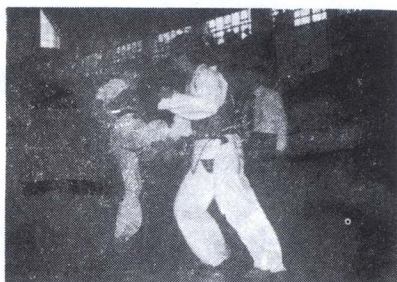
체급별 토너먼트로 거행, 메달수로 종합전적을
판가름하는 이번 경기에서는 75년도최우수선수
권대회를 앞두고 고등학교선수들의 기량을 테스트
하는듯 열린 응원속에 8체급의 우승자를 가려
냈는데 경양급에서 4체급을 석권한 체육전문학
교가 종합우승으로 총장기를 차지했다.

첫번째 갖은 대회라 경기도 풍생고등학교를제
외한 12개 고교팀이 모두 서울팀으로 전국규모
로는 미흡하였으나 태권도 경기인구 저변확대라
는 과제를 놓고 볼 때 연세대학교의 총장기쟁탈
전은 각급 대학교에서 국민학교교내회나 중고등
학교선수권대회를 주최할 수 있는 밝은전망을보
여준 좋은 본보기라 하겠다.

어려운 여건하에서 첫 출발이라는 청신호는진
행상에 아쉬움도 있으나 앞으로 전국규모로서손
색이 없는 권위있는 대회로 발전할것을 믿어 의
심치 않는다.

종 합 전 적

단체우승 서울체육고등학교



(들려차기를 왼손으로 막고 주먹지르기 자세를 취하고 있다)

(금 4, 은 2, 동 1)

준 우 승 경기도풍생고등학교

(금 2, 동 2)

3 위 남산공업전수학교

(금 1, 은 1, 동 3)

체급별 우승자명단

핀 급	김형수(체육고)
푸라이급	김종기(체육고)
뽀 탄 급	박오성(체육공)
페 더 급	지상현(천호상전)
라이트급	최재천(체육고)
웰 터 급	이문희(남산공전)
미 들 급	장종태(풍생고)
헤 비 급	임상순(풍생고)

제2회 전국국민학교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

The 2nd Primary School Taekwondo Championships



(제2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이후 모처럼 초만원인 이문 경기장전경)

제 2 회 전국국민학교 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가 1975년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동안 국기원에서 열렸다.

한국국민학교태권도연맹이 주최하고 대한태권도협회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제주도 서귀국민학교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모인 꼬마유품자들이 946명이나 참가하여 열전을 벌였다.

당초 대회일자가 10월중에 있을 예정이었으나 전국체전과 각종 대회가 겹쳐 다소 경기를 치루기전에는 기온이 낮았으나 많은 관객들로 세계대회이후 국기원은 모처럼의 성황을 이루었다.

경기는 A·B조로 나누어 1학년에서 3학년까지를 A조, 4학년에서 6학년까지를 B조로 하여 각각 8체급으로 구분 준결승까지를 1분 2회전으로 하고 결승에서는 1분30초 3회전으로 경기를 치렀다.

첫날 개최식에서는 늑름하게 입장한 꼬마선수들의 입장식에 이어 양대석국민학교연맹회장(교동국민학교교장)은 개회사에서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참가한 것은 국기태권도 발전에 밝은 조짐으로 우리 모두가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끝까지 선전분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것』을 당부했다.

이날 경기는 개최식전 라이트급 B조 조성환(창서)선수대 강신희(경북)선수의 대결과 동급 추병조(청구)선수대 박태환(한강)선수의 대결로 양코트에서 벌어졌다.

오후 6시 40분까지 속행된 경기에서는 320제임을 마쳤는데 1분2회전으로 선수들이 충분히기량을 발휘할수 없는점이 아쉬웠으나 그동안 닦았던 실력을 발휘 고사리같은 손과 발기술은 성인들의 기술을 능가하는 멋진 경기운영으로 2회

전에 진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체에 탈락하여 최·비가 엇갈리는 모습은 이곳 저곳에서 볼수있었는데 체중이 조금 무거워 탈락하는 선수들은 대부분 눈물을 보여 관객들의 마음을 안타깝게도 하였다.

이틀째인 15일에는 토요일로 많은 관객들이 저마다 출전선수의 응원에 열중하는 모습이 이채를 띠기도 하였는데 비교적 날씨가 스산하여 정오부터 뿌리기 시작한 가랑비는 어린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기에는 다소 낮은 기온이었는데 내일의 준결승진출권을 놓고 안간힘을 쓰는 선수들의 모습은 안스럽기까지 하였다.

이날 경기에서는 남자들 틈에 10명의 여자선수들이 참가 경기를 치렀는데 대부분이 탈락 2명의 선수가 준결승에 진출권을 획득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많은 선수들이 참가 B조 웰터급의 경우 137명의 선수들이 7번의 경기를 가져야 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충실하게 경기에 임하는 어린 선수들의 자세는 오히려 성인경기의 내용보다도 알차다고 볼수 있겠다.

마지막날인 16일에는 오후 2시까지 벌어진 경기

에서 16명의 금메달리스트를 탄생시켰는데 A조 푸라이급 이진(본동)양과 A조미들급 김현숙(남대문)양은 당당히 남자선수들을 물리치고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 주위를 놀라게 하였다.

또한 전북전주 완산국민학교는 금메달 4개 은과 동메달을 각각 하나씩 획득하여 지방선수들로서 저녀출진인 이번 대회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냈는데 태권도가 전국적으로 많이 평준화되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번 대회를 통해 아쉬운점은 제체에서 체중이 넘칠 선수가 다른 조로 출전하는등대회진행에 다소 무리가 있었다.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너무 많은 참가선수로 경기진행에서 무리가 있었으며 선수 시청에서도 자기 학년이하로 출전하는 등의 문제점은 앞으로의 대회에서 유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많은 선수층을 갖고 있는 국민학교대회가 년간 1회 밖에 전국규모의 대회를 갖지 못한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되어 있으나 76년에는좀더 많은 대회를 개최 어린 선수들이 자기의 뛰어난평소의 기량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것을 기대해 본다.

체급별 입상자 명단

A 조					B 조					A 조					B 조				
체급	순위	성	명	학교명	체급	순위	성	명	학교명	체급	순위	성	명	학교명	체급	순위	성	명	학교명
핀 급	1	박희경	복가좌		핀 급	1	홍재선	광 회		라이 터급	1	김한식	완 산		라이 터급	1	한석만	완 산	
	2	유영락	우 이			2	이종선	광 회			2	임진오	창 신			2	최준호	완 산	
	3	김용철	도 극			3	김동찬	우 신			3	유정재	수 진			3	김형준	보 광	
	3	최재현	장 안			3					3	김영수	부 평			3	윤선희	부 평	
푸 라이 급	1	이 진	본 동		푸 라이 급	1	이세현	남대문		웰 터급	1	최이현	동 명		웰 터급	1	권기문	완 산	
	2	하종석	광 회			2	김진수	성 남제2			2	강철환	광 장			2	안명일	영 본	
	3	서동원	홍 파			3	이형배	전 목			3	홍경원	예 일			3	김동원	신 립	
	3	김승현	구 포			3	박정효	공 덕			3	김택수	구 포			3	안정준	용 두	
뺨 람 급	1	김용구	부 평		뺨 람 급	1	이재용	남대문		미 들급	1	한성욱	해 화		미 들급	1	김종대	미 동	
	2	유병인	대 남			2	서만복	목 동			2	김현숙	화 문			2	김정식	송 벼	
	3	윤병곤	완 산			3	송재규	강 남			3	박종수	남대문			3	김병학	월 국	
	3	김지태	광 회			3	임선재	학 의			3	장진우	미 동			3	이장열	신 담	
페 더 급	1	김태웅	완 산		페 더 급	1	이은규	성 남제2		헤 비급	1	한정환	광 회		헤 비급	1	안정술	명주대	
	2	김 군	전 능			2	이해진	전 능			2	이재경	은 로			2	김태현	진 북	
	3	이상욱	아 현			3	문형준	신 정			3	박종민	면 목			3	정원섭	계 성	
	3	안구영	용 산			3	한재우	남대문			3	안상현	남대문			3	백성민	성 남	

에집트로 뻗어간 태권도현황

The Present states of Taekwondo activities in Egypt

노 승 옥 사범



(카라반지에서 대서 특필로 보도된 제2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전 국토의 90%가 사막인 에집트 오늘날에는 통일아랍으로도 불리우고 있다. 아라비아사막과 리비아사막을 사이에 두고 고도의 고대문명을 낳은 나일강은 오늘도 6,000km를 유유히 흐르고 있다.

피라밋들 많은 고적이 있으나 오늘날에는 이스라엘과의 분쟁으로 세계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다.

한국스포츠사상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에집트태권도선수단은 귀국후에 제 2회 세계대회 결과를 반관영 알·아람紙와 카라반紙등에 대서특필로 보도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세계대회에서 주장선수로서 출전할바 있는 무스타파·시드키(MUSTAFA SIDKY)선수는 비록 입상은 못하였지만 대회에서의 느낌을 기고하여 에집트태권도 분에 새로운 선풍을 일으키고 있다.

세계대회에 참석했던 선수들이 국기원에서 출

전을 기다리는 장면과 노승옥사범의 시범사진을 함께 게재한 카라반紙는 앞으로의 에집트태권도의 전망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고무적으로 보도하고 있어 중동지역에 진출한 태권도가 국위선양은 물론 한국외교에도 커다란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에 자부해 본다.

아프리카 태권도의 분기점 우간다

A turning-point of Taekwondo in Africa



(우간다소리에 게재된 태권도 소식)

아프리카 대륙의 태권도 분기점 우간다.

75년 제 2회 세계대회를 마치고 귀국한 우간다 태권도선수단은 정부로부터의 열렬한 귀국 환영을 받았다고 전해왔다.

특히 선수단중 웰터급으로 출전한 오두토선수는 동메달을 차지하고 귀국하여 우간다의 유력지인 우간다의 소리(VOICE of UGANDA)에서 대서특필로 보도한층 사기를 높여주고 있다.

특히 그곳주재 김남석사범은 75년 9월 23일 일제개특진(우리나라와 비교하면 경무관)의 영광을 차지하기도 하였는데 김사범은 이자리에서 이미 아민우간다대통령에게 검은띠와 태권도복을 증정하기로 하였다고 전해왔다.

제2회 아시아태권도 선수권대회—호주

Australia is busy in preparation for the 2nd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금강역사를 넣은 대회 포스터)

종주국을 떠나 처음 갖는 태권도국제대회를유치한 호주태권도협회는 대회준비에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전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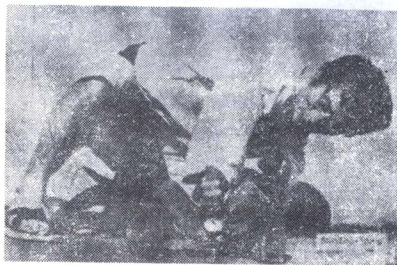
금년 10월 16일~17일(2일간)으로 결정된 대회일자는 그곳 주재한국사범들은 대회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느라고 75년 제 2회세계대회를 마치고 한달이상을 한국에서 머물며 자료수집에 열을 올리기도 하였다.

75년 12월에는 금강역사를 넣은 포스타까지만 들어 각국에 발송 제 2회아시아선수권대회 해

의홍보활동은 물론 호주내에서의 선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몇개월의 기간은 남아있지만 보다 알차고 규모있는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원한다.

낙농의 나라 덴마크의 태권도 소식

Taekwondo News from the land of dary —Denm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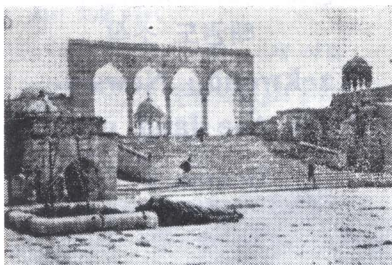
(서독의 신부용사범의 격파시험과 함께 제2회 세계대회결과를 상세히 보도했다)

제 2회세계대회에 참가했던 덴마크의 판탐급 모렌·넬센(Morien Niesen)선수는 대회가 끝난 후 지금까지 종주국에 머물며 태권도 기술연마에 여념이 없다.

그런데 덴마크에서 언론인으로 일하는 부친 퍼·넬센(Per Nilsen)씨로부터 세계대회 결과에 대한 상세한 보도가 지상에 발표되어 주목을 끌고있다고 전해왔다.

독일주재 신부용사범의 시범장면을 실은 사진과 함께 녹음테이프로 전해온 내용은 제 2회 세계대회의 결과와 앞으로 덴마크태권도의 전망에 대한 인터뷰로 밝은 내일을 보여주주고 있는데 비교적 활발치 못한 덴마크의 태권도는 유럽주재 사범들과 함께 모렌선수의 귀국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요르단에 진출한 태권도 소식 Taekwondo move into Jordan



(성지로 유명한 구에루살렘시)

아파카만을 통하여 홍해에 접하고 서쪽으로는 이스라엘과 남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둘러싸여있는 요르단은 인류발달사에 남을 종교적 유적이 많아 기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의 주요 구시가(舊市街)의 대부분이 이 나라에 속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그리스, 로마시대, 십자군, 터키 지배하의 유적이 많아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다.

후세인국왕이 통치하는 입헌군주국으로 대요르단공사청부를 맡은 초석건설지원인 유영한씨가 알·후세인스포츠市와 알리·스포츠클럽 및 라페대학에 각각 주 3일간 태권도를 지도하고있다.

그곳 요르단 문교성 허가를 취득하여 시민들은 물론 후세인국왕 및 황태자에게도 인기가 높다고 알·라이(AL RAL)신문에 보도되어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고 그곳 주재한국대사관은 전하고 있다.

중동의 적극적인정책에 태권도를 통한 민간의 교사절로서 국위선양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속의 태권도, 성장하는 우리의 국력과 함께 영원히 매아리 질 것이다.

태권도 열기로 가득찬 남태평양—타이티 South Pacific fiiied with heat of Taekwondo



(승급심사후 수련생들과 함께 기념촬영 우단이장영보사범)

태권도지 15호에도 소개된바 있었던 타이티의 태권도현황은 나날이 뻗어가고 있어 남태평양에서는 태권도의 분기점으로 더욱 각광을 받고있다.

제 2 차 세계태권도연맹총회에 회의대표로 참석했던 로버트·락울 타이티태권도위원장은 대회결과를 조직과 규모에서 어느 국제대회보다 책임새가 있었다고 그곳의 유력자인 라디·페시(LADEPECHE)에 보도하였다.

특히 타이티태권도장의 전담은 많은 진전올보았고 유력인사들로 짜여진 타이티태권도협회 결성으로 BAODRY(바드리) 타이티무술협회장과 CROUTE MICHEL(쿠르트·미첼)방송국장이 명예회장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고있어 350여명의 회원을 확보한 타이티태권도협회는 현재 2명의 유단자가 배출되었고 4명의 유단자를 국기원에 신청중에 있다.

년간 4회에 걸쳐 일개월씩을 머물며 타이티의 태권도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는 장영보사범은 수련생을 종주국에 파견, 기술습득은 물론 현황

파악을 위해 약 1개월간 머물렀는데, 예정으로 76년 1월 국기원에 도착했다.

앞으로 남태평양의 많은 섬들에서도 태권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는 밝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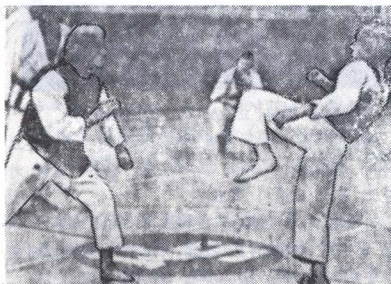
망을 보여주고 있지만 대부분의 섬들이 佛領으로 본국과의 행정적인 유대관계가 원만치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앞으로의 보급전망은 낙관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미국의 '태권도 종합 소식'

News summary in the Unites States

태권도를 정규과목으로 채택

—텍사스 입규봉사법—



(세인트 마크스 체육관에서 열린 고등학교대학 경기장면)

텍사스에 있는 4개의 중고교에서 태권도를 정규과목으로 체육시간에 넣어 지도하고 있다.

세인트·마크스, 하케이, 그린힐, 리치랜드등의 학교에 태권도를 지도하고있는 입규봉사법(5단)은 태권도를 체육시간에 정규과목으로 넣기까지는 많은 고충이 있었으나 정신수양 및 건전한 체육으로 인식한 학교당국과 학부모들의 협조로 태권도의 열을 싣고있다

특히 75년 12월 4일에는 그동안 수련했던 4개 학교의 선수 150여명이 출전 성황리에 대회를 끝마쳤는데 모든 경기 진행을 대한태권도협회 규정으로 경기를 운영하였다고 전해왔다.

미국 75년 체육인에

이준구사범 티미상수상

워싱턴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준구사범은 76년 1월 17일 워싱턴 터치타운클럽에서 75년의 체육인으로 지명되어 티미상을 수상받았다.

수상 내용은 미국내의 탁월한 태권도 보급에 대한 공로이다.

리치몬드지역대회 개최

—권정남 사범—

제 2회 세계대회에 미국 선수단에 코치로 활약했던 권정남사범은 귀국후 리치몬드(Richmond) 지역대회를 대한태권도협회 경기규정으로 개최성황을 이루었다고 전해 왔다.

제 2회 세계대회이후 미국내의 태권도에 대한 인식을 더욱 새롭게 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아울러 미항공우주국(NASA)에서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는 차수용사범의 활약과 국회의원들을 다수 지도하고 있는 심상규사범의 활약도 기대된다고 전해 왔다.

재일동포 태권도 소식

The Korean Residents Association in Japan of Taekwondo News



(모국을 방문 한국의 얼을 익히고 있는 모습)
日本속에 한국인!

양분된 한반도의 비극은 일본에 까지도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다.

머우기 일본에 귀화하여 한민족의 후예임을 감추고 일본인으로 동화된 많은 재일동포도 있다.

그러나 지난해 조총련계 동포의 추석 성묘단 모국방문에 이어 금년 초에는 구정방문으로 우리는 일본속에 한국인을 좀더 알수있는 기회가 있었고 우리의 뇌리에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에서 가장 많은 우리의 동포가 살고있는 日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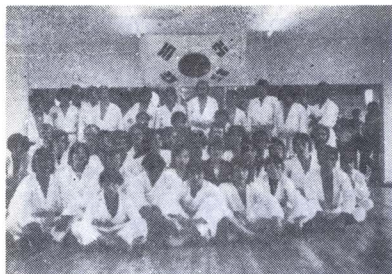
이곳에서 국기태권도를 수련하며 한 민족의 긍지와 얼을 2세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大阪한국학원과 京都한국학원은 태권도친선경기를 통해 우리의것을 알고 잊혀져가는 민족문화계승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가레메의 나라속에 한국인들의 태권도 수련은 해외교포 2세들의 교육문제에서 보다 실질적인 민족의 얼을 전수할 수 있다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는것으로 평가받아 끊임없는 후원을 아낌없이 받아야 할 것이다.

서독의孤島 베르린속에

Taekwondo in the Berlin

—김태현 사범—



서독속에 孤島(고도), 베르린(Berlin)!

1961년 동·서의 장벽으로 독일의 섬이라고 까지 불리워지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기억도 벌써 15년이 흘렀다.

지금은 인구 250만의 각양 각색의 피부가 다른 인종박람회장파도 같은 국제도시 베르린에도 각종 무술도장이 40여개에 달하고 있다.

이곳에서도 태권도는 다른 동양무술의 끈질긴 방해공작을 무릎쓰고 75년 초에는 김태권도학교를 개설 착실히 뿌리를 댄고 있다. 그러나 가라베등 공부를 다른 무술도장으로 부터 도전과 협박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해 11월1일에는 태권도 연무 시범을 통해 무도에서 스포츠로 전환된 태권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불어넣었으며 한국에 대한 참다운 이미지 부각에 성공을 견두었다.

이날 시범에는 베르린주재 총영사를 비롯, 유럽주재 이경명, 서윤남, 채수용사범의 성원으로 2,500여명의 관중을 매료시켰는데 시범에서 까지 가라베등 다른 무술의 조직으로 부터 야유를 받았으나 무사히 시범을 마쳐 앞으로 태권도에 대한 밝은 전망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태권도로 유신교육 구현에 앞장서는

경기도 성남제 2국민학교

국적있는 교육의 신장을 목표로 인구 30만의 경기도 성남시 성남제 2국민학교는 태권도를 통한 새마을정신 구현에 여념이 없다.

“깨끗한 생활을 하자”는 학교 교훈아래 김만복교장이 앞장서서 70명의 교사와 함께 4,400여명의 교사리손들은 오후 한때 자유학습 시간에는 넓은 운동장을 메우고있다. 남녀학생을 구분하지않고 전원의 참석, 성남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보며 힘찬 태권도의 구령소리는 80년대의 풍요를 향한 우리 모두의 마음에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언행일치, 착실하고 남을 위해 일할수 있는 마음자세와 강건한 체육인의 양성을 목표로 30년간의 교직생활에 모토로 삼아온 김교장은 모두가 참여하고 누구나가 할수있는 태권도로 학교 교육의 새마을정신확립이라는 과제아래 『생활유신의 기본은 국민학교에서 부터 몸에 밴 정신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 전교생의 체력증강은 물론 경기출전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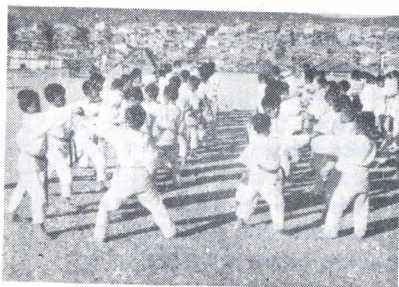
80명의 유품자가 경기도내의 각종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파시하고 있는데 상급학교에 진학하여서도 좋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

6년의 짧은 연혁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11개국민학교중에서는 제일 먼저 태권도를 시작하여 72년 봄에는 전교생에게 태권도를 보급한 최국환사범은 『그동안의 어려웠던 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오늘날에는 연중 학교행사 계획작성에도 포함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재미있는 특별활동은 농악대를 육성하여



(좌로부터 최국환사범, 교감, 김만복교장)



(전교생의 참가로 장관을 이루는 품세지도 장면)

태권도와 함께 민족문화계승에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체성있는 교육방식에 관계인들은 물론 학생, 학부모와 삼위일체가 된다면 빛나는 결실 올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태권도 구령소리를 드높이는 녹두장군의 후예들

전주완산국민학교



(75년 각종대회에서 획득한 우승기와 우승컵을 안고 기념촬영 좌상단은 이영근교장)

전주시에 우뚝 솟은 완산칠봉을 바라보고 의연히 서있는 완산국민학교.

지·덕·체의 조화적 발달을 학교교육의 이념으로 튼튼한 육체 속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이영근교장은 완산태권도부의 산파적 역할을 스스로 감당해냈다.

1970년 4월 이영기사범을 지도사범으로 완산의 태권도부가 발족하였다. 당초에 어려움을 예상못한것은 아니지만 난관과 고난의 연속이었다. 지방특유의 배타심과 부형들의 비협조, 헤아릴수없는 역경속에서도 완산의 태권도는 묵묵히전진을 계속 유급자가 유품자로 탈바꿈하면서 서서히 완산의 태권도부는 인식을 달리하는데 성공하였다.

73년 부터는 그곳 지방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자 양명진교사를 중심으로 권재석, 전성치후원회장은 태권도부에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오늘에날에는 200여명의 유품자를 배출하

였고 70명의 유품자를 확보하고 있어 경기출전에도 선수들의 빈곤을 느끼지 않고 있다.

수련에도 특이한것은 새벽수련으로 4시 30분 학교에서 집합 어둠속을 헤치며 산으로 올라 2시간 동안의 새벽수련을 거듭하는 것이 지구력향상에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75년 11월 국기원에서 열린 제2회전국국민학교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과 은, 동메달을 각각 하나씩 획득하여 관계임원들을 놀라게 하였는데 투지와 인내로서 어려움을 극복 이날의 영광을 차지한 태권도부원들은 물론 정성어린 학부모들과 뒷바라지에 수고한 후원회장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처녀출전인 첫 중앙대회에서의 빛나는 성과는 오늘도 녹두장군의 후예들이 밝은 강당에서 우렁찬 태권도의 기합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고 완산칠봉을 메아리 치고있어 내일을 향한 우리 모두의 희망에 밝은 서광을 기약해 주고 있다.

태권도로 새 마을 역군 길러내는

청주농업고등학교

6만 6천명의 방대한 학교시설은 농업 한국의 내일을 짊어질 향토새마을의 기술자들의 요람인 각종 농업실습장이 자랑스럽게 펼쳐있다. 1912년 개교 이래 충청북도내에서는 가장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영농역군을 배출하는데 공헌하고 있다.

이곳 1,400 여명의 학생들은 지식한양은 물론 심신단련으로 10여년전부터 태권도를 시작 충북태권도보급에 주도적 역할을 감당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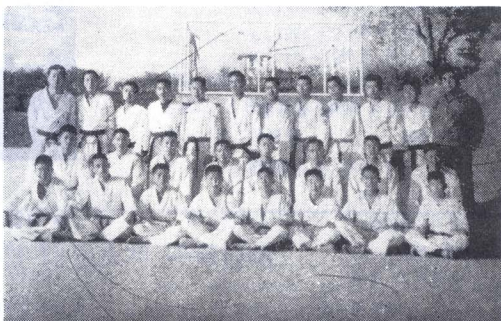
白承錄교장의 뒷바라지에 힘입어 柳台紀체육교사는 8년간 재직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전교생에게 태권도를 지도하여 왔는데 태권도를 지도하게된 동기는 현실에 맞는 운동으로서 가장 좋다고 판단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수련생들도 무엇 때문에 태권도를 하느냐는 질문에 한결같이 자신을 위해하는 운동이라고 서슴없이 대답한다.

나를 위한 수련이 학교를 위하며, 지역사회의 명예를 높이고, 나아가 국가와 민족을 위한 스포츠로서 발전할수 있는 근본이라며 조그마한나 하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주저함이 없다.

이러한 체육이념을 목표로 수련하는 수련생들은 도내 태권도 부분에서는 단연 타의 추종을불허하고 있는데 기초체력 단련을 위해 4km의 구보와 지구력, 순발력은 물론 정신력에 치중하고 있다.

지도방법도 교학법이 저학년들을 지도하는 자치적인 방법으로 커다란 성과를 올리고 있다.



(제55회 체전을 앞두고 선수들과 함께 우단이 유태기 교사)

76년의 목표는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전원보급화에서 전원선수화에 중점을 두고있는데 11회 대통령하사기생탈단체대항전을 목표로 전력투구하고 있다.

또한 이들 수련생 중에는 금년에 2학년인 마상현선수가 기대되고 있는데 작년 55회체전에서고 등부 미들급에서 우승을 차지하였고, 10회대통령하사기생탈전에서 동급우승을 75년도 최우수선수선발전에서도 동급 준우승을 차지하여 지방 선수로서는 유망주로 손꼽히고 있다. 제 2 회 아시아대회 한국대표선수의 꿈을 안고 맹훈련을 거듭하고 있는 마선수를 재학생 중에서 대표선수로 선발되는 날을 기대하며 충북 교육위원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전원보급화와 전원선수화의 꿈을 이룩하려는 청주농업고등학교의 태권도 기상이 길이 빛날것을 기대한다.

협 회 동 정

★ 75년 10월 31일

제 2 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기록영화 시사회

장 소 : 대한체육회 제 1 회의실

영화상영이 끝난후 김운용회장은 G.A.I.F.

가입에 대한 경위 설명 및 유의사항 전달

1. 사범의 자질 향상
2. 기술 개발
3. 심사의 권위
4. 체제의 정비
5. 외국인에 대한 심사절차

★ 11월 2일

제 66회 전국 승단 심사 대회

장 소 : 국기원

응심자 : 642명

★ 11월 3일

기술심의회 개최

장 소 : 본회 회의실

참석자 : 기술심의회 의장단 및 각분과위원회 위원장

안 전 : 주한외국인 승급심사에 관한전

★ 11월 4일

재일본 대한민국 거류민단 중앙본부 요원 80명 국기원방문. 재일동포 2세인 이들은 남대문국립학교 태권도시범단의 연무시범을 관람하고 국기원의 시설을 돌아보았다.

청년국장 심종효씨는 『모국을 방문 이렇게 훌륭한 국기태권도 시범을 보고 돌아갈수있는 기회가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11월 9일

제 44회 전국 승품심사대회

장 소 : 국기원

응심자 : 446명

★ 11월 14~16일

제 2 회 전국 국민학교 태권도개입선수권대회

장 소 : 국기원

참가선수 : 946명 이진의 15명 우승



(재일동포 2세들의 국기원 방문)

★ 11월 15일

객 • 하버 한국걸프오일지사장 국기원방문. 본국으로 귀임차 국기원을 방문 김운용회장으로부터 재임기간동안 태권도 발전에 노력한공로를 치하받고 명예 3 단증을 수여받았다.

★ 12월 1일

주한 외국인 승급심사제도 발표

1) 주한 외국인 승급심사를 대한태권도협회에서 관장

2) 주한 외국인 지도사범 등록에 관한전

★ 12월 4일

기술 심의회 의장단 및 각분과위원장회의

장 소 : 본회회의실

안 전 : 1976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 12월 6일

주한 외국인 지도사범 소집교육

장 소 : 대한체육회강당

교육내용 : 주한외국인 승급심사에 관한 지시 사항

★ 12월 13일

제 67회 전국 승단심사대회

장 소 : 국기원

응 심 자 : 842명

★ 12월 14일

제45회 전국 승품심사대회

장 소 : 국기원

응심인원 : 825명

★ 12월 15~20일

제15기 지도자 교육

장 소 : 국기원

참가인원 : 114명

★ 12월 20일

1975년도 전국태권도 우수선수 선발대회(본문

참조)

장 소 : 국기원

참가선수 : 90명

우 승 자 : 중기부 김정식 외 7명

고기부 안장식 외 7명

★ 12월 27일

제67회 전국승단심사(교단자 실기시험)

장 소 : 국기원

응심인원 : 125명

★ 1976. 1월 17일

1975년도 대의원 총회(본문참조)

장 소 : 대한체육회 대강당

중요안건 : 1. 1975년도 사업보고

2. 1975년도 수·지결산보고

3. 1976년도 사업계획통과

4. 1976년도 수·지예산안통과

5. 기타사항

★ 1월 18일

제46회 전국승품심사대회

장 소 : 국기원

: 324명

계간 태권도지 구독안내

날로 뻗어가는 태권도는 세계를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태권도지 애독자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 회를 거듭할수록 발행부수는 늘어나는 기쁜 소식을 애독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태권도지구독을 문의하시는 많은 애독자를 위하여 정기구독신청을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접수하고 있으니 이용있으시기 바랍니다.

보낼곳 : 우편번호 100

서울 중구 무교동 19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지 구독 담당자앞

※ 국내에 한함

1년간 구독료 : 1,240원(송료포함)

6개월 구독료 : 620원(송료포함)

.....절.....취.....선.....

No. _____

주 소				우편번호	
성 명			구독구분		
※ 1. 정자로 정확히 명기할것. 2. 구독구분에는 1년간과 6개월을 정확히 구분하여 써 넣을 것. 3. 구독료는 소액환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낼 것.					

K T A NEWS

☆ Oct. 31, 1975

A preview of the documentary film, "The 2nd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Place: Conference room of the Korea Amateur Sports Association After the show of the film, Un Yong KIM, President, explained how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WTF) was admitted into the GAIF(General Assembly of 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 and gave directions as follows:

1. Improvement of quality of Taekwondo Instructors.
2. Development of techniques.
3. Strict promotion test system.
4. Reorganization of systems.
5. Promotion system for Taekwondoists residing in Korea to be properly administered.

☆ Nov. 2

The 66th Dan Promotion test

Place: Kukkiwon

Applicants: 642 persons

☆ Nov. 3

Meeting of the Technical Council

Place: Conference room of KTA

Agenda: The Geup promotion tests for foreigners in Korea.

☆ Nov. 4

Eighty members of Mindan (Korean residents Association in Japan) visited the Kukkiwon.

Most of them were second-generation Koreans. They watched Taekwondo demonstrations by the Namdaemoon Primary school students and toured the facilities at Kukkiwon. Chong-Hyo Shim, Chief of Youth Department, expressed his than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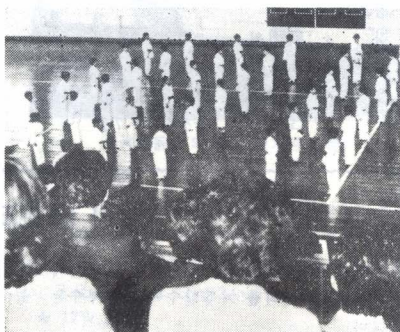
for providing them with a chance to observe such magnificent Taekwondo demonstrations during their visit of the motherland.

☆ Nov. 9

The 44th Poom Promotion test

Place: Kukkiwon

Applicants: 446 persons



(Korean residents Association in Japan visited the Kukkiwon)

☆ Nov. 14-16

The 2nd Indual Taekwondo Championships for Primary School students

Place; Kukkiwon

Participants: 946 persons

Participating school:104

☆ Nov. 15

Jack Harbaugh, President of the Korea Gulf Oil, visited Kukkiwon before his return to the United States. He was awarded an honorary 3rd Dan black belt from Un Yong KIM, President of the Kukkiwon, for his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Taekwondo during his stay in Korea.

K T A NEWS

☆ Dec. 1

KTA to controll alien "Geup" promotion test.

1. The Geup promotion tests for foreign residents in Korea will be directly controlled by the Korea Taekwondo Association.
2. All Taekwondo instructors for foreign residents in Korea are required to register at KTA.



(Awarded an honorary 3rd Dan black Belt from Un Yong Kim)

☆ Dec. 4

Joint meeting of the Technical Council

Place: Conference room of KTA

Agenda: Deliberation on the 1976 project plans.

☆ Dec. 6

A seminar for instructors for foreign residents in Korea.

Place: Auditorium of the Korea Amateur Sports Association.

Agenda: Geup promotion tests for foreign

residents in Korea.

☆ Dec. 13

The 67th Dan Promotion test

Place: Kukkiwon

Applicants: 825 persons

☆ Dec. 15-20

The 15th Taekwondo instructors Refresher Course.

Place: Kukkiwon

Participants: 114 persons

☆ Dec. 20

National Taekwondo Competitions for the best player of the year 1975

Place: Kukkiwon

Participants: 90

☆ January 17, 1976.

The 1975 General Meeting of National delegates.

Place: Auditorium of the Korea Amateur Sports Association

Applicants: 23 delegates.

Agenda:

1. Report of the 1975 projects
2. Report of the 1975 balance sheet
3. Deliberation on the 1976 project plans
4. Deliberation on the 1976 balance sheet plans
5. Other matters.

☆ January 18, 1976

The 46th Poom Promotion test

Place: Kukkiwon Applicants: 324 persons

주한외국인 승급심사 협회에서 관장

KTA to control alien "Geup" promotion tests

주한 외국인들의 승급심사를 75년12월 1일부터 협회에서 관장하게 되었다.

앞으로 주한외국인들은 승단심사(승품심사도 동일)에서는 그동안 수련한 승급심사 결과에 근거를 두고 응시할 수 있는데 적어도 18개월 이상의 수련자에 한하여 1단심사(1품심사)에 응시할 자격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주한외국인들의 단에 대한 종주국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확고히 하고 이들이 귀국하여서도 태권도 수련에 따르는 과정에서 수련년한은 물론 기술 향상에 도움을 줄수있게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주한외국인들을 지도하는 사범들은 협회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외국인 지도를 위한 특별 소양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The "Geup" promotion tests for foreign Taekwondo Students residing in Korea will be controlled by the Korea Taekwondo Association (KTA) starting December 1, 1975.

Therefore, unofficial Geup promotion tests not authorized by the KTA are prohibited.

Geup certificated, issued by private instructors are inval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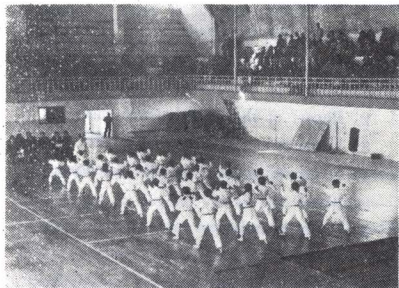
Beginners in Taekwondo have to undergo an intensive training of one and a half years before they can apply for the 1st Dan black belt (1st Poom black/red belt in junior division.)

Only those Taekwondo trainees who have completed the official Geup course are qualified to apply for the 1st Dan black belt (1st poom black/red belt in junior division.)

Taekwondo instructors for foreigners in the Republic of Korea are required to register at KTA to receive official licences as Taekwondo instructors.

태권도를 체육과목으로 채택

—서울 외국인학교—



36명의 유품자들이 품세 시범을 보여주고 있다. 관람석에서는 한 동작 한 동작을 열심히 지켜보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

주한미군내에 있는 서울 외국인학교에서는 금년 봄부터 태권도를 체육과목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지난 2월20일 1,550여명의 학생들은 광운전자고등학교에서 남대문국민학교 어린이 태권도시범단의 연무시범을 관람하였는데 그동안 일부 학생들은 부분적으로 태권도를 배워왔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정식체육과목으로 채택 태권도를 수련하게 되었다.

토마스 오코너(Tomas O'coner)교장은 『성인들의 시범은 여러번 보아왔지만 어린이들의 시범은 처음』이라며 외국에 주둔하는 부모를 따라 온 자녀들에게 한국교육의 태권도를 배울수있는 기회가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金雲龍總裁 大韓體育會副會長에 留任

KOC 副委員長 및 명예總務도

KTA President Un Yong Kim Selected
Again as Vice President of the KASA and KOC

1976년 2월 11일 대한체육회의 신집행부 구성 발표에 따르면 김운용總裁는 대한체육회부회장 및 K.O.C副委員長과 명예 총무에 유입되었다.

74년 1월 대한체육회부회장 및 K.O.C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총재는 74년 12월에 공석중이던 명예총무도 겸직하여 왔는데 국제스포츠사

회의 폭넓은 외교수완은 임기 4년의 한국체육계의 집행부를 이끌어 나갈 능력있는 人事로 부각되어 세계로 뻗어간 태권도와 함께 한국스포츠가 국제스포츠로 탈바꿈하는 시점에, 김운용총재에 거는 활약을 기대해 본다.

기술심의회 임원 일부 개편

Reshuffle of Members of the Technical Council

기술심의회 각분과위원장 및 부위원장 일부가 개편되었다.

• 76년 1월 27일에 발표된 개편 내용은 파견분

과위원회가 국제분과위원회로 흡수되고 학교분과위원회가 신설된것이 가장 큰 변동사항으로되어있다.

技術審議會委員名單

議長 李南石(유입)		副議長 李炳路(유입)		金寅錫(유입)	
分 科	委 員 長	副	委 員	長	
企 劃	金光得(전임)	韓光洙(유입)	鄭東錫(전임)		
競 技	李敦允(유입)	禹濟林(유입)	朴明壽(유입)	金浩載(신임)	
審 判	金順培(유입)	黃春性(유입)	任文奎(전임)	金千善(신임)	
審 査	玄鍾明(유입)	元天喜(유입)	郭柄五(신임)		
教 育	朴海滿(유입)	金容瑞(유입)	邊東植(유입)		
研 究	李永變(전임)	金在基(유입)	權京旭(유입)		
編 輯	高在天(전임)	全正雄(유입)	陳德英(유입)		
國 際	金容好(전임)	金忠植(신임)	李圭錫(전임)		
賞 罰	李龍雨(유입)	申長植(신임)	崔南道(신임)		
學 校	洪正杓(전임)	鄭燦謨(신임)	盧相錫(신임)	朱尙一(신임)	
指導委員	白駿基(유입)	金先九(전임)	玄友泳(유입)	李今洪(전임)	

대한체육회제정

1975년도 태권도부문 최우수선수

—Profiles of the Best Taekwondo Player in 1975—

유영합 선수

2월 7일 대한체육회 대강당에서는 1975년도 한국스포츠를 빛낸 최우수선수들에게 경기단체별로 영광의 메달이 수여되었다.

태권도부문에서는 유영합선수가 수상한 것 기쁨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는데 1953년생인 유선수는 서울토박이로 劉璣俊씨와 金次男女史의 3남3녀중 다섯째로 막내 여동생을 두고 있다.

형들이 운동을 좋아해 인천선인중학교에 입학하면서 태권도를 시작 이듬해엔 신인선수권대회에 출전 준우승을 차지한 것을 계기로 고등학교를 서울 광성으로 옮기면서 본격적으로 태권도를 연마 태권도선수로서 기쁨을 다졌다. 인천체육전문학교에 진학하여서도 각종 대회에는 빠짐없이 출전하였다.

그러나 174cm의 신장에 라이트의 최상선인 68kg을 유지하며 물러차기와 뒤물러차기를 주특기로 하는 유선수도 행운아만은 아니었다.

73년 제 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경망급에 출전하였으나 체중이 오버 실격을 당했고, 74년 제 1회 아시아대회에서도 준결승전에서 김철환선수에게 패해 한국대표의 꿈을 좌절 당하고 말았다고 쓰라린 추억을 되살렸다.

대회출전 수실회가 되도록 아직도 부진승 한번없이 여세계 재수가 없는 한때는 운동을 포기할까도 하였는데 어머니와 누님들의 정성어린 뒷바라지가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75년 4월 유럽원정선발전에서 강호들을 차례로 물리



1975년 주요경력

유럽원정 한국대표라이트급
제 2 회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라이트급 한국대표
체육훈장“기린장”수상
1975년도 최우수고기부
라이트급우승

치고 행운의 티켓을 잡은것을 계기로 승승장구 제 2 회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한국대표최종선발전에서는 결승전에서 상대선수를 KO로 물리치는등 실력을 과시했고 75년도 최우수선발전에서도 무난히 라이트급의 금메달을 확보 최정상 을 확인했다.

태권도를 시작한 이래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가장 애매로운일은 유럽원정 한국대표로 선발되었을 무렵 군에 입대원정을 포기할뻔 하였고, 제 2 회세계대회한국대표선수로 선발되었으나 대회일자를 몇일 앞두고 간신히 합숙에 참가할수 있던일은 잊을수 없다고 말한다. 최우수선수로 선발된 소감도 뒷바라지에 애쓰신 어머니님과 유럽원정 및 세계대회에 출전할수 있도록 배려해준 육군태권도부 김길성감독에게 수상의 영광을 돌리며,편찮으신 아버지에게 75년의 최고의 선물을 드린 막내의 기쁨은 어디에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서는 남은 군생활 동안 더욱열심히 태권도를 수련하여 78년 세계대회까지 꼭 출전하여 중주구 태권도의 실력을 과시하여 보이겠다」고 굳은 의지를 보였다.

평소 주위의 동료들로부터 내성적이나 예의가 바르며 남을 도울줄 아는 운동선수라고 말하는데 이에 그치지 말고 자신의 영광과 함께 태권도 발전은 물론 국가와 민족에 이바지 할수있는 참다운 체육인으로서 나아가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것을 기대할 본다.

한국태권도 전망과 우리들의 자세

—Taekwondo its prospects and our posture—

◇—제67회 전국 승단심사대회 고단자 필기시험 답안지 중에서 발췌한 것이다. 앞으로도 고단자 논문중 잘된것은 발표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정신적 유신이 급선무

정 용 택

근래에 들어와서 한국태권도의 중요성과 태권도가 미치는 국위선양에 비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긍정을 불러 일으켰다.

더우기 대한태권도협회가 창설된후 한국태권도가 세계의 태권도로 발전한것은 그동안의 짧은 연혁에도 불구하고, 피나는 노력으로 눈부신 업적이라 하겠다.

과연 태권도하면 으레 사람들은 어떤 폭력을 상상하였고 많은 부적합한 태권도인에 의해서 그와같은 이미지를 갖게 했던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태권도는 세계의 태권도로 발전하면서 중주국의 태권도인들은 정신적인 유신을 기하므로써 세계인들의 귀감이 되어야하였다.

태권도가 타무술인 “가라테”나 “공루”등에 비해 그 세계화의 길은 짧다고 볼수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있고 각국의 태권도 봄은 자국의 국군에게조차 정식과목으로 채택하였고 타무술에서 태권도에 귀의함은 태권도가 우수한 정신력과 과학화된 수련의 근거이며 신속한 경기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싯점에서 더욱 태권도를 발전



시키려면 이들을 지도하는 한국태권도 지도자들의 정신적인 자세의 유신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태권도인들은 마치 하나의 검

(刀)을 손에 쥔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몸전체의 부분 부분이 상대방을 쉽게 다치게 할수있는 능력을 소지하고있는 검(刀)과 같다는 이야기이다. 만일 이러한 검의 소유자가 정신자세가 불안정했을때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란 상상할수도 없을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수련시에 기술연마와 함께 정신수련은 중요한몹을 차지한다고 하겠다. (둘째) 태권도의 과학화와 체력증강이다. 세계인들이 태권도 하면 한국인을 연상하였고 그 태권도의 위력은 과거 우리

가 월남전선에서 여실히 증명되었다. 그러나 세계대회나 아시아대회에서의 느낌은 서구인들에 비해 체력의 열세이다. 이러한 열세의 체력을 극복하고 태권도중주국의 면모를 유지하려면 강한 정신력과 꾸준한 과학화로의 연구 뿐 일 것이다. 세계로 지도자의 자질향상이다. 현재 세계도처에서 태권도를 지도하는 사범들의 활약상은 많이 들고있어 저마다 국위선양을 위해 노력하는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금할길 없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지도자들이 國技跆拳道를 하나의 생업수단으로 영리에만 급급한다는 소식을 들었을때는 분노를 금할길이 없다.

그와같은 지도자가 양성하는 수련생들의 정신

자세를 생각한다면 강력한 조치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해외파견시에 엄격한 선반비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품세의 통일과 용어의 통일을 기해야 하겠다. 서투른 외국어로 자기나름대로의 명칭을 자작하여 부르는 사람들, 심지어는 가라데등의 명칭을 인용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태권도에 대한 모독이며 와전이라 하겠다. 우리 고유의 무술인 태권도는 반드시 우리말로 구령을 붙여야 하겠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은 우리 모두의 정신적 유신으로 과감히 시정하여 태권도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자세 필요

이 완 배

1975년 10월 『카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국제경기연맹(G.A.I.F)총회에서 우리의 국기인 태권도가 정식으로 가입되었다는 사실은 태권도인들은 물론 국민전체의 기쁨이 아닐수 없다.

특기할 사항은 20세기인 오늘에 GAIF에 가입하였다함은 한국의 전통성과 과학성의 표현이요 의교의 성공내지는 세계속의 스포츠로서 당당히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이러한 빛나는 결과는 우리 한국태권도인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피와 땀의 산물인 것이다.

우리는 이 중대한 시점에서 우리가 대처해야 할 커다란 사명감을 갖고 좀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1. 스스로의 원리(자주, 자력의 원리)
2. 새로운 원리(혁신 개혁)
3. 서로의 원리(협동)
4. 하나로의 원리(통일)
5. 바로의 원리(정의)

상기의 5원칙에 입각하여 우리 태권도인들은 (첫째) 가능성에 대한 신념 (둘째) 적극적인 思考 (셋째) 부단한 훈련을 내용으로 끊임없이 노력할때 가까워진 올림픽의 광장으로 접근하는 첩경의 길이요, 나아가 세계 만방에 한국 고유의 무도인 태권도는 더욱 발전을 계속할 것이다.

이러한 큰 命題앞에 우리 태권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내적인 인간성숙의 교양과 외적인 새로운 기술개발에 양면성을 두고 더욱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이다.

우리에 주어진 커다란 숙원앞에 스스로 창조하고 새로이 개발하며 협력할때 우리 민족의 영원인 조국통일의 하나로의 사상에 접근하여 정의로운 인간성숙은 자연히 이룩되어 올림픽경기장에 태극기가 휘날리며 영원히 꺼지지 않는 태권도의 등불은 세계를 비쳐 “동방의 등불” 아니 세계의 등불이 될것을 확신한다,

국기원 마크 변경

Symbol mark of Kukkiwon was changed
newly on Feb 1 1976



국기원의 마크가 76년 2월 1일자로 변경되었다. 새로이 도안된 마크는 밖으로부터 三圓(삼원)은 廣義로는 天(하늘), 地(땅), 人(사람)을 뜻함이고, 狹義로는 自(자기), 他(남), 滿(온누리)으로 우주의 섭리를 깨달아 터득한다는 뜻이다.

내부의 원은 지구를 표현하고 있으며 지구를 중심으로 팔면에 태권도 품세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인종과 언어가 다른 온 세계에서 모인 조직으로 태권도 가족이 인류의 복지평화와 단결로서 태권도의 한 가족을 이룬다는 뜻이다.

태권도에 관심깊은 피엘·랜디 불란서대사 이임 French ambussador Pierre Laedy left Korea



제 1 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폐막식에서 격려사를 하는 피엘·랜디대사

지난 71년 5월 주한 불란서대사로 부임한이태권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제 1 회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비롯하여 제 1 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와 제 2 회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까지 국제대회는 물론 국내의 큰 대회에는 빠짐없이 참석하는 열의를 보인 랜디대사가 구암 12월 8일 한 국을 떠났다.

특히 제 1 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는 폐회식에서 한국의 태권도를 통한 세계인의 우정을 느꼈다고 격려사를 하기도 하였는데 피엘 랜디대사의 후임으로는 디스이어·듀·크로(Remy Teissier Du Cros)대사가 후임으로 부임하였다.

국기 태권도를 지켜보는 모정

- ...저는 한 주부로서 국민학교 5학년에 재학중인 아들...○
- ...이 태권도를 수련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자랑스럽게...○
-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동안 4년이라는 긴 세월...○
- ...을 보내며 보고 느낀것을 적어본 것입니다. 다행...○
- ...히도 이 글이 국기 태권도 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 ...보탬이 된다면 더 없는 기쁨이될 것입니다...徐信愛...○

72년초 남대문국민학교 2학년에 다닐때였읍니다. 저의 외아들인 재용이가 신학기에 들어서자 태권도를 하겠다고 조르는 것이었읍니다. 8살밖에 되지않은 어린 나이아 아직 운동을 시켜보겠다는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거니와 운동을 빙자하여 학업에 지장이 있을까 염려되어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였읍니다. 그러나 한편곰곰히 생각해보니 어린마음에 하고 싶다는 일을 부모가 무조건 막는다면 만사에 자신을 잃지나 않을까 염려도 되었읍니다.

그리고 또 외아들로 자라서인지 의지가 약한것 같다고 느꼈었기에 어쩌면 좋은 기회가 되리라하는 생각도 들었기에 마음에 결심을 하여 재용이의 의사에 따르기로 결정하였읍니다.

그때의 솔직한 심정은 태권도라는 운동이 어린아이에게 좀 심한 운동이 아닐까 하여 은근히 걱정도 되어 외아들인 재용이를 선뜻 체육관에 보낼 생각은 없었읍니다.

더우기 학교에선 우등에 반장을 하고있는 재용이가 운동으로 인하여 학업에 지장이 있지않을까 하는 심정에 더욱 노파심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읍니다.

자기의 자식을 밝고 명랑하게 키워보겠다는생각은 어느 부모들이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재용이와 저와 약속을 했읍니다.

아예 중간에서 힘들다고 그만둘 생각이라면서 작을 탈기로 다짐을 했는데도 어린마음에 어찌될일인지 끝까지 해보겠다는 것이었읍니다.

입관을 시키긴 했는데 제일 큰 걱정은 학교에서 후암동 집까지의 거리에서 소요되는 약 20분 정도의 시간은 어린나이에 주어진 여전이 너무 벅차지나 않을까 하는것이였읍니다. 2시간동안 태권도를 수련하고나서 복습과 예습을 학업성적에 지장이 없도록 애쓰는 모습은 안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하였읍니다.

그러나 외아들로 자란 재용이가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은 대단스럽기조차 하였읍니다.

운동을 시작해서 그런대로 취미를 붙이며 고단한것도 모르고 열심히던 아이가 4개월이 지나자 반복되는 생활에 싫증을 느꼈는지 수련에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하는 눈치가 보였읍니다.

그때부터 함께 도장을 드나들며 아들의 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된것이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태권도장을 드나들게된 동기가 되었읍니다.

퀵태기가 지나자 열심히 하는것같았는데 약 1년후 혹터를 메고나서부터 또다시 운동을 그만두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이때가 가장 어려운 고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을 운동을 마치고 곤히 잠든 재용이의 모습을 보고있노라면 문득 그때의 일이 생각나곤 합니다. 외아들로 애지중지 길러온 아들이 이러한 일에서 포기 한다면 커서도 모든일에 있어 중도에 그만둘수있다고 판단. 이때만큼이나 자식에게 수련을 강요한적도 없을뿐더러 고심을 하여부적도.



(태권도를 수련하는 재용이의 모습을 지켜 보는것이 하루의 일과처럼 되어버렸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봉기 사범님과 1주일간의 여유를 두고 재용이를 설득하는데 성공,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운동에 열중하는 모습을 볼 수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더욱 열심인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대문 국민학교에서는 자신의 육체적 발전뿐 아니라 남에게 보여줄수 있는 시범에도 중점을 두고있어 평소 수련후에 또 시범연습을 하며, 학업성적에 신경쓰며, 운동을 한다는 것이 그리 용이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뒤질세라 묵묵히 연습에 충실하는 모습은 대견스럽기 한이 없었지만 간혹 심한 수련에서 기합을 받는 모습도 목격하곤 할때 내가 너무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도 극성스럽게 따라다니며 뒷바라지를 하는 저를 본 동료들은 아이들이 수련하는것을 함께 보기도 하는데 심한 수련이라며 운동을 포기하도록 권유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재용이가 막무가내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못하여 기합을 받는것이라며 오히려 그런소리를 못하도록 하는 아들의 어른스러움을 보았을때 가슴 뿌듯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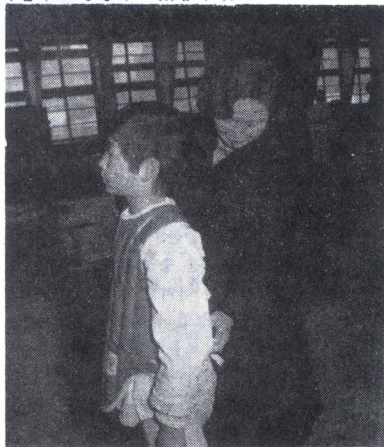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들의 시범을 하는 곳이 라면 매와 장소를 가리지않고 참석, 교락을 같이 하였습니다.

90여회에 달하는 시범중에서도 국기원 개원식, 세계제 1 회대회와 제 1 회 아시아 대회를 비롯, 세계제 2 회대회에서도 아낌없는 관객들의 찬사는 시범을보여준 어린이들과 함께 기쁨을 맛보았고 태권도 발전에 기여한다는 마음과 재용이가 선택한 태권도 수련에 더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재용이는 시범에 그치지않고 경기에 있어서도 꾸준한 노력의 결과는 74년 제 1 회전국국민학교 개인선수권대회 B 조 밴텀급에서 금메달을 차지하였고 75년 전국국민학교 개인선수권대회에서도 B 조 밴텀급 금메달의 영광을 차지하는등 비교적 순탄한 영광의 길을 걸어온 셈입니다.

이러한 시간의 흐름속에서도 벌써 태권도로서 작한지 만 4년 이제는 국민학교 6학년이 됩니다

75년 6월에는 2품으로 승품을 하였고 신장도 142cm 재용이는 학급에서도 비교적 뒷줄에 앉는 신체적 발육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감기 한번 앓지 않는 튼튼한 어린이로 자라고 있으며 스스로를 감당할 수있는 책임감있고 모범된 어린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호구가 제대로 입혀졌나 메만져 본다)

더우기 75년 11월에는 개교 30주년을 맞아 학교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으며 11월 16일에는 협회 창설이래 없었던 상패와 상장을 대한 태권도협회장으로부터 수상받았습니다.

한 어린 태권도 수련생의 어머니로써 주어진 최대의 영광에 무한한 기쁨을 감출길이 없습니다.

자식을 통하여 스포츠를 알게 되었고 태권도를 통하여 저는 더욱 많은것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육체적 발전뿐만 아니라 몸매 스포츠정신은 인격형성에 있어 중요한 몫을 차지하며 일찌기 운동을 시켜놓것이 협동정신과 의타심을 버리고 어른을 존경할 수 있는 예의 바른사람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이 될수있도록 일깨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태권도의 경기규정에도 제 나름대로판단이 섭니다. 물론 두 선수가 별다른 공격도 없이 경기가 끝날때는 자기 아이가 좀 더 잘한것같이 보여지곤 합니다. 속담에도 "팔이 안으로 뻗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책임을 지도사범들에게 돌리는 경우도 간혹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운동이든지 시험의 운이 따르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험의 운은 우리가 살아가는때도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많은 연습으로 충분히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출전한다고는 하지만 상대의 선수도 그러한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경기에 졌다고 하여 다시는 경기출전을 안 시키겠다는 부모들의 푸념도 듣곤 하지만 왜 졌는지 어떤 점이 부족하였는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다음 대회에 출전하여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할수 있는 지도자가 가장 유능한 사범이 될것입니다.

또한 진선수에게도 위로를 하여줄수 있는 마음 가짐도 중요할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처음부터 자기가 구상하였던 대로 된다는 것은 힘든 일이나 특히 경기에 있어서 우승자가 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실감하곤



(경기에서 우승한 재용이와 감사패를 받은 어느날)

합니다.

하면 된다는 굳은 신념 아래 추운 영하의 기온 속에도 힘찬 "태권"이라는 구령 소리를 들으며 하루 해를 보내는 나의 일과는 어느덧 마음으로는 태권도복을 입고 어린이들과 함께 풀세를 하고 있는 착각을 하기도 하며 재용이가 열심히 수련을 계속하여 국가원에서 3품심사에 응할 날을 고대해 봅니다.

그러나 영광된 결과에 대해서는 무한한 노력과 끊임없는 정진만이 요구되는 것을 한 아이의 어머니로써 아들을 지켜보며 더욱 실감있게 느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계속 재용이에게는 태권도를 시킬것입니다.

끝으로 회생과 봉사로써 국기 태권도 발전에 이바지하는 일선사범님들과 함께 무한한 협회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유신의 기수상을 수상받은

—Instructor Duk Young Moon received
Presidential Award "Yushin"—

文 得 龍 사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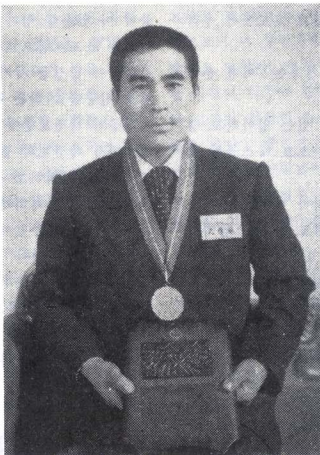
태권도사범으로 75년 10월 4일 제 1 회청년대상 새마을지도부분 본상에 이어 구랍 12월 27일에는 대통령각하로부터 유신의 기수상을 수여받아 주위의 미담으로 널리 화제를 모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부산에서 태권도장을 하는 文得龍사범(5단)으로 소년시절부터 어려운 역경 속에 태권도를 수련하기 시작 오늘날의 배움의 어려움을 생각, 불우청소년들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무언가 일을 할것을 결심 73년 1월 부산시 부곡동청년회를 조직 1 년동안 매일 1회 이상 조기청소는 물론 하절기전염병 방역소독등 지역사회 발전에 힘을 기우렸다.

그해 12월에는 총공사비 160여 만원을 투입 청년회관을 준공 7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불우이웃돕기에 나서 부곡동내의 극빈자에게 생활필수품을 전달하였으므로 목심기, 산업도로정비등은 물론 74년 11월에는 구두담이 50여명에게 태권도를 무료로 지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활발한 불우청소년선도사업은 끝내 부곡새마을중학교를 75년 3월 9일 개교하게 하였는데 재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 다방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이제는 학생수가 100여명을 헤아리게 되었고 10여명의 교사가 배움의 전당을 찾아 오는 이들 불우청소년들에게 지식을 함양시키고 있는데 문사범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들에게 태권도를 통한 실기 및 정신교육을 매일 오후 8시부터 10까지 실시하고 있어 주위의 인식을 더욱 새롭게 하고 있다.

그동안 청소년선도사업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



문사범의 주요경력

- 1965년 부산체육관설립
- 1970년 대한태권도협회5단승단
- 1972년 제 2기지도자교육수로
- 1973년 제 3급심판자격획득(165호)

상금 60만원을 기금으로 장학회를 만드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한다.

이제 태권도는 세계로 뻗어나가 그곳에 토착화하여 더욱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자칫하면 우리는 우리 주위를 등한시 할 염려가 있는 것이다.

비단 해외에서의 활동만이 태권도를 발전시키는 것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지역 지역을 알차게 키워나갈때 태권도의 앞날은 무한한 전진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 발전에 있어 태권도의 보급은 물론 사회에 기여할수있는 문득용사범의 앞날에 더욱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한 어린이놀이터설치, 동민체육대회개최, 방범활동등 많은 일들을 주도해 나갔다.

이러한 많은 일들을 하기위해서는 적잖은 경비가 소요되는배도장에서 나오는 수입과 뜻있는 독지가의 도움으로 이루어 졌다고 말하는 문사범은 가장 어려웠던 일은 『74년말 구두담이 소년들에게 태권도를 지도하기 시작하자 지방유지 및 그곳 기관장들의 염려가 태권도교육후에 그들의성격형성 결과를 우려 반대했던일』들을 회상하며 즐거웠던 일은 『새마을중학교를 설립하여 불우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보람은 평생을 두고도 잊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앞으로의 포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폭넓은 사업을 펼칠것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번엔 받은

매스컴 보도에

신중을 기하였으면

홍 성 천

간혹 지상은 통해서나 각종 매스컴의 보도에서 우리의 얼굴을 볼히는 경우가 종종있다.

사회면의 특종기사에서 폭력범의 경우는 어떤 운동을 하였다는것이 다루어지곤 한다.

물론 일반인들의 상식으로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태권도인이 한사람으로 매스컴의 신중을 부탁하고 싶은 것이다.

오래된 일이지만 창경원에서 벼락이 떨어져 성직자가 중상을 입은 일이 있었다. 이때에도 각 매스컴에서는 그의 직업과 관련하여 강조하듯 보도를 하여 여러 신자들의 마음도 그리 유쾌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근자에 와서 조계종에 난입한 주범으로 金모라는 이가 태권도3단이라고 타이틀을 뽐은 신문을 보았다.

물론 150만의 태권도인들 중에는 별아별 많은 사람

들이 다 있을줄 안다. 직업, 연령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스포츠맨으로서 이러한 빙산의 일각도 안되는 사람들이 망신을 시키는 사태가 있음은 우리의 자세에 더욱 신중을 기하는 경종으로도 받아드려야 하겠다.

아울러 태권도법에 편승한 일부 TV코메디물과 상업 광고에서 태권도의 올바른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사태도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극중에서 태권도의 고단자가 어이없이 무력하게 되어버리는 경우 제작면에서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이 역시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국기태권도 발전에 종사하는 사람들뿐아니라 매스컴, 국민들의 호응이 뒤따라야 할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태권도인들의 부단한 노력이 뒤따라야 하겠다.

폐회식에서의 관중의 매너 아쉬워

鄭 慶 鎬

각종 경기가 있을때 마다 느끼는 심정이다. 지난 한해동안만 해도 국내에서는 많은 국제대회가 개최되어 스포츠팬들의 관심에 대상이 되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경기를 보여주는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곤 하지만 어느 경기에서든지 폐회식의 장면을 보면 관중들의 태도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화려한 개막식에 이은 열띤 경기, 손에 땀을 쥐게하는 열전의 연속후에 시상식에는 으례히 입상선수들만이 남아 외로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곤 하는 모습은 비단 경기장에서 뿐만아니라 TV를 통해서 본 시청자들도 느끼는 심정일 것이다.

입상의 영광을 차지하기위한 선수들의 부단한 노력

과 피나는 훈련의 연속을 반복하며 분투하였던 선수들을 시상식에서나마 좀더 격려할 수 있는 관중들의 태도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관계인들은 남아 더욱 더 정진할 수 있는 좋은 대화도 나눌수 있겠지만경제적으로 발전하여 선진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국력과 함께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에서 다만 체육관계인들만의 책임이라고 방관할것이 아니라 경기장내나 온 관객 한사람 한사람이 끝까지 남아 입상자들의 수상을 격려하는 자세는 “체력은 국력”이라는 표어를 들추지 않더라도 경제발전 못지않게 중요한 스포츠의교의 밑거름으로 국민들이 보여 줄수있는 새마음정신이 라고 생각된다.

태권도는 인격완성을 위한 우리의 國技

林 永 澤

먼저 두서없이 쓰는 글이 태권도를 修鍊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더 없는 기쁨이 되겠다.男子란 힘과 언변과 글을 잘 써야 사내 노릇을 한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健康에 무관심 하면서 자기 자신의 目標達成을 위해 일에 몰두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指導層이 되거나 자기의 理想을 實現하기회를 얻기위하여 일에 전념한다. 무리가 뜰튼 하여일이 茂盛하고 좋은 열매를 맺으며 갖은 풍과를 이겨내듯이 여기에 健康한 心身을 더하지 못한 者들은 한창 활동할 나이에 썩은 고목같이 허무하게 쓰러져 버리는 예를 볼수있다. 그러나 運動으로 단련한 심신은 쉽게 지치지 않으며 오래 참고 逆境을 克服해 나갈수 있는 底力이 있다.

나는 시골에서 국한학교를 마치고 고교 進學은 全北道청 소재지인 전주 고교에 入學했다. 학년초엔 地理에도 어둡고 친지와 親舊도 없는 전주는 외로웠다. 그래서 강한신체를 길러 앞으로 닥칠 모든 난관을 헤쳐나가야겠다는 결심이 생겼다. 그해 4월에 입관을 했다. 하숙은 번두리에 정했기 때문에 도장과의 거리는 往復 1시간 이상이 소비됐다. 학생의 신분으로서 무척 貴重한 時間이었다. 포기 할까도 생각 했으나 운동은 안한다해도 그 시간에 모두 공부에만 전념하는 것도 아니나 학업의 能率도 문제가 됐다. 人生에서 運動하는 시간을 빼 버리기로 하고 주어진 시간에 最善을 다해 학생의 본보인 학업에 精進 하기로 결심하니 기분이 후련 해 졌다.

그럭저럭 몇달 다니다 생각하니 跆拳道가 아무런 위력도 없고 무슨 춤추는 것 같았다. 앞차기 몇가지 주먹 지르기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나의 생각이 오산이었다고 깨달은 것은 유단자와 겨루기를 하다가 K.O당한 후 부터 같은 발차기 이지만 그 위력이 달랐고 일직필살의 주먹의 위력과 물놀림의 신속함 상대방의 공격을 알아볼 수 있는 정확한 안목이 있다는데 감탄하자 열심히 수련 하고자 하는 意慾이 생겼다. 빨간 띠 부터는 검은 띠를 향한 執念이 생기게되고 얻어맞는 것도 덜하게 되니 다닐 의욕이 솟았다. 그러나 너무나 勝感이 많았다. T.V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시험기가 닥친 다든지, 유혹은 한 없이 많았다.

그러나 이런 유혹은 이겨야 된다. 이 길은 외로운, 고독한 길이기 때문이다. 도장에서 운동을 심하게 하고오면 온 몸이 쭈서뻐고 모르게 귀찮기만 한날이 한 두번이 아니다. 3급까지 따고는 그 달엔 中間考査도 있고해서 족 쉬었다. 원하는 물건도 구입하고 잠도 싹껏 자고보니 더 무질서한 生活이 되었고 성격도 더욱 나빠지고 말았다. 여기에서 포기 하기에는 검은 띠에 대한 미련이 너무나 강했기에 다시 도장에 나갔다. 너무나 시간이 천천히 가는것 같았다. 평평 쏟아지는 눈을 보로 낭만을 즐기기도 하는 추위와 싸워가며 더운 열기로 의지를 키워갔다. 다음해 2가 되고 4월에 승단 심사를 응시해서 꿈에도 바라던 유단자가 됐다. 5월부턴 大入에 몰두하게 되어 가끔 한번씩 나가 몸 푸는 정도에 그쳤다. 신체검사때 1년만에 평창히 많이 성장한 것이 태권도를 한 덕분 같았다. 항상 전신을 사용하며 근육을 늘리는 운동이기 때문에 성장에 도움은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3이 되자 운동엔 신경쓸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나름대로 집에서 수련은 계속했다. 天地가 하얀 옷을 입고 차가운 입김만은 天地에 난무할 때도 새벽에 일어나 산에 올라가 발차기, 주먹단련 줄넘기를 계속했다. 덕분에 체력장에서 만점을 얻을 수 있었고 공부에도 경시하지 않은 인간의 성실성으로 大學에 입학할 수 있었다. “진짜 運動은 유단자가 되면서”라는 사범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나름대로 특기를 기르고 싶어서 다시 도장에 나갔다. 계속해서 수련을 하니가 습관이 되어 쉬는 날이면 괜히 몸이 쭈실 지경이 돼 버렸다. 跆拳道를 배우게된 후로 많은 것을 배웠다. 힘이 생기니까 담력도 커지게 되고 배짱도 생기고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위해 싸울수 있었다. 시종 禮義속에 전개되는 운동이교보는 예의와 忍耐와 경양의 美德를 기를수가 있었다. 많은 사람과 상대 하니까 대인관계의 원만성도 기를수 있었다. 남을 指導해 봄으로써 表現도 기를수 있었다. 跆拳道는 무도적인 투기운동으로서 心身磨練, 護身, 人格完成을 目的으로 하는 우리의 國技이다.

모두 跆拳道를 修鍊해서 智, 德, 體를 겸비한 진실한 民主市民으로서 역량을 발휘했으면 한다,

滿員버스 의 멧

趙 信 德

안내양의 “발차”라는 고탈소리와 함께 버스는 잘지자를 크게 그리며 1단 기어에서 2단으로 변속을 한다.

나는 무사히 탈수있었다는 안도감을 갖고 안으로 머물어갈수 없나를 살펴본다. 오늘도 하루의 첫 일과는 버스를 타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인구 700만의 서울!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이면 자자의 삶의 터전으로 부지런히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은 학교로, 직장인들은 일터로 발길을 옮기는 것이다.

이러한 이동방법에서 우리는 대부분이 대중교통 수단으로 버스나 전철을 이용하는데 나의 경우는 전철하오는 무관한 지역이라 버스를 이용하는 도리 밖에없다

대개의 경우 출근시간이 비슷하여 버스는 종점에서 이미 만원이 되어 내가 타는 정류장에서 내리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통과하기가 일שו고 일단 버스가 정차를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타야만이 제 시간에 출근을 할수가 있는 것이다. 타고나면 목적지까지는 20여 정류장이 남겼되어 번두리에서 중심가로 들어가는 대부분이 그렇듯이 내리는 사람은 별로 없고 타기만 하다가 어느 정도 부터는 계속 내려놓기만 하는 것이 아침 출근 버스의 공통점일 것이다.

그러므로 일단 버스에 오르면 가장 복잡하지 않은 뒷쪽으로 가고 드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버렸다. 자리를 확보하고 나서 승객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천태만상 자기보다 더 큰 가방을 들고 등교하는 학생, 한껏 멧을 부리며 출근하는 아가씨등 정원 50명의 버스는 3몹을 더 태운것 같다. 그렇게 복잡한 중에서도 담배를 피워물고 열심히 조간신문을 탐독하는 모습은 주위에 서있는 승객들의 얼굴에서 더욱 흥미가 있는 모습을 림을수 있다. 담배연기를 바로 앞에서 맞는 사람은 온통 얼굴을 찡그리며 빨리 꺼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좀더 솔직한 사람이 그 앞에 설 경우는 “담배불쫄끔시다”하고 이야기 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미안한 표정으로 얼른 끄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내 담배내가 피는데 무슨 잔소리냐” 하는 식으로 더 길기 많

은 연기를 내 뿜으며 아까운듯 비비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즈음에는 이런 압제 족속은 흔치 않고 자기도 간신히 매달려 탔으면서 “우리가 무슨 짐작이나 코만 태워라” 더 이상 태우면 재비가 없다는등 험한 인상을 짓는다. 그러면 안내양들도 이에 뒤질세라 안에는 비었으니 멀리가는 승객들은 안으로 들어 가란다. 그러나 대부분의 승객들은 만성이 되어 자기의 설 자리를 재빠르게 차지하고는 침묵을 지킨다.

이렇게 하면서 출근 버스는 일로 중심가를 향해 질주를 하고 뉴스해설이나 낡은 카세트의 잡음섞인 음향이 안내양의 외침과 묘한 하모니를 이룬다. 그러나 앉아있는 승객들은 대부분 무표정하게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기기가 일수이나 어떤 이들은 아예 코를 풀는 경우도 있다.

자양 객색의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곳까지 실어나르는 버스도 겨울에는 그런대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적다. 그러나 7,8월 한 복중에는 땀냄새 화장품 냄새, 차에서 내리면 열이 다 빠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매일 만원 버스속에서도 잔혹 신호등에 걸려있노라면, 차창 밖으로 통근 버스에서 피안의 언덕을 바라보는 듯한 군상들의 모습은 그런대로 이해가 가나 자가용에 가방을 옆에놓고 의젓이 혼자 앉아 만화책을 뒤적거리는 모습을 내려다 볼 양이면 선인들의 말씀중 “올려다 보고 살아가 한다”는 말이 이것은 예상치 못한 말씀이라 고 생각된다.

그리고 버스안에서 구두를 밝히는 경우 재수가 없는 날이라 고 생각하다간 일년내내 재수없는 날이 될까봐 아예 구두를 밝히는 날이 재수가 있는 날로 마음을 바꾼지 이미 오래다.

그러나 출근하기전에 생각할 수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고 많은 군상들의 꿈과 낭만을 멋대로 상상할수 있는 기회가 있어 좋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만원 버스에 흔들리며 시달리고 있어도 내가 존재한다는 가치를 느끼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것에 만원 버스의 멧은 있는 것이다

강한자에게 단것이 나와야

임 창 호

“먹는자에게서 먹는것이 나오고 강한자에게서 단것이 나왔는데 이것이 무엇이겠느냐”는 삼손과 데릴라의 이야기중 삼손이 데릴라와 결혼할때 신부의 마을 청년들에게 삼손이 질문한 하나의 수수께끼이다. 삼손이 수수께끼를 생각해 내게된 내역은 삼손이 데릴라와 결혼하기전 데릴라를 만나러 그녀가 마을을 가는 도중산 중에서 사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자가 그를 보고 심히 소리를 지르니 삼손이 그의 특별한 힘을 이용하여 새끼염소를 찢듯이 그 사자를 가볍게 찢을 수 있었다 얼마후에 다시 자기의 애인 데릴라를 만나러 가는길에 자기가 찢었던 사자의 몸에 벌레가 모여있었고 그곳에 꿀이 있어서 그 꿀을 먹은 일이 있었는데 그 사실은내용으로 수수께끼를 푸는 것이다. 사자는 모든 것을 잡아 먹을 수 있는 먹는자이고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강한 자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그 강한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왔는데 그 먹을것이란 단 꿀이었던 것이다.

태권도가 강인한 체력과 강인한 정신을 배양하는 강한 것임을 생각할때, 사자의 강함을 비유할 수 있을것이다. 강한 사자에게서 단꿀이 나왔음을 비유해서 우리 태권도인에게도 꿀과같이 단것이 나와야 함을 생각해 본다. 우리 태권도인에게서 나와야 할 단것이란 과연 무엇이냐 정신과 육체가 약한자들에게는 자기의 약함을 위장하고 강한자 틈에 생존하기 위해서 많은 병폐를 낼 수 있다. 약한자에는 아무도 있을수 없고, 수군수군하는 모사도 있을 수 있으며, 남을 깎아내리고 내가 올라서려는 모략과 시기, 질투가 가능하다. 배타적인 사상도 가능하다. 또 자기의 약점을 위장키 위해 자기의 자랑만을 내세우면서 오는 교만도 가능하며,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돕기는 커녕 약육강식의 사상도 가능하다.

그러나 강한자에게는 그런 것이 있을수 없다. 참으로 강한자에게는 그런 병폐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고, 사회를 명랑하게 하고 단것이 나올수 있다. 강한자이기 때문에 약한자에게 동정과 사랑을 나타낼 수 있으며 강한자이기때 아량과 포용성이 있으며, 또 자기의 약점과 허점을 쓸데없이 감추려고만 하지 않는다. 자신있게 고쳐나가므로서 자기의 발전을 계속 가져올 수 있으며, 강한자이기때 무슨일에나 정의에 입각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있어 주변의 위력이나 압력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바른 판단과 실천을할 수 있다. 불의에 동조하거나 불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며, 스스로를 높이려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으며, 무가치한 도전에 쓸데없이 힘을 파시 하려하지 않고, 여유있게 인내할 수 있다. 또한 여러가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도 조급하거나 당황치 아니하고 꾸준히 참고 견디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 강래의 모든 일을 차분히 설계하여 꾸준히 밀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모든 태권도인은 강한 의지와 체력을 가지고 있는강한자이다. 이 강한자는 꿀과같이 단것을 나타내 보이므로 속해있는 가족과 단체와 사회가 밝고 건전하게육성되도록 하는데 주춧돌이 되어야 할 것이다. 태권도가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길러주는 무도이며 스포츠라 불때, 태권도인들이야말로 진정한 단것을 생산해낼 수 있는 강한자들이 아니겠는가?

바라건대 모든 태권도인들이 매일매일의 수련을 통해 좀더 강한자가 되어 그 강함속에서 단것을 생산해내고, 또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단맛의 영향을 줄 수 있을때 태권도의 권위와 태권도인의 품위는 더한층 치솟을 것이다.

연재만화 7

태순양

최경철





국기원 승품심사 합격자 명단

Promotion test for Poom at
Kukkiwon list of those passed

제44회 승품심사 합격자 명단(75년 11월 9일) (The 44th Poom-promotion test)

1품 (First Poom)

서원국	정유성	유형근	손태호	전명호
정현일	김형돈	장권일	민정기	김정수
오태성	김영기	서종철	나성채	안호식
유남혁	민병선	이태경	전운수	김준호
박관수	변재영	정일구	최종복	이재용
추명철	조경상	김용태	채병윤	김상욱
장익현	조성운	김재복	황규식	이종국
유영현	유승우	김동현	배진규	강재모
최상욱	조장한	전재영	김성학	안상준
임병호	오기열	김경복	이상원	홍순길
정재록	유철희	박병열	김진호	박병택
박대순	김경호	염정우	박재경	박철희
고오준	이종섭	이재희	이재상	배진우
김태구	김종욱	조 빈	백운길	문태환
문태승	한진욱	박철화	김경철	김우진
권경달	김경록	황규현	강대광	김경순
김정태	정진환	홍정천	김정연	김영민
표순병	손용진	윤성증	최종웅	윤원근
조경영	이광용	김문국	김승희	이상민
박충기	김병재	유순용	강동준	서호준
안강일	정진성	전수민	임근식	한남규
백영호	이기현	남현문	홍재범	이봉우

문지옥	김진수	박정기	김영진	김성곤
김용국	송석용	안진영	유기연	박윤배
김정문	강복영	김상욱	김병조	석승환
이정만	정희일	백영우	홍창기	손창현
김선철	하 성	이성원	서호진	김영현
박상석	김형우	임윤성	이승우	최문현
김병국	홍석기	나재승	이상준	조화익
정상덕	이동하	장기원	엄태용	조병익
김창현	황진우	소재우	이창호	고재현
임성호	전성우	장 학	김두식	조용철
김성우	양해현	이상윤	박광호	이홍로
김철우	서상길	권오석	고상덕	양인규
장 혁	김종환	이준성	최창열	이상용
이상목	이창근	김한준	황준하	김광진
이병희	강해일	김정열	이명열	최창규
전호경	신민수	유서성	이재혁	박진용
서경민	강승구	정승화	강정미	김정훈
박기영	이정수	송형곤	김진노	박홍필
조세일	김철성	이주석	윤성환	김진욱
홍영환	강희준	고영준	지덕윤	신원욱
박상일	김선완	함정열	김성훈	공한봉
윤일수	임도한	윤흥기	황인신	권형준
이경진	오철택	정대근	최종호	이재호
정형상	정재훈	오형진	신승원	김기수
박진범	서상표	김 욱	박재현	박상서

<합격자 명단>

고성윤 권동욱 유진호 서정배 장재출
 김진경 박철홍 정우진 이창규 이진아
 김재연 김용태 문지영 유지현 김정호
 이석구 이근영 임재홍 이훈영 정철호
 김상범 김용운 안명진 태재홍 이재원
 김태창 권성욱 심종학 이기문 심문용
 윤호기 이진영 김인수 김정문 손재성
 김민창 김상범 서동원 김용구 황유상
 이광희 김용진 김수모 유원준 이재호
 김학정 채승완 백영준 윤준화 최상덕
 전용준 전상훈 이진석 허창문 이성주
 정석준 정세진 최종만 최익수 우창봉
 한금기 김상현 서승문 김광희 이진
 이원석 광경환 김성규 강영민 전의수
 박홍준 서승완 김창완 강호준 박영학
 허환일 최종금 오재혁 김호동 신상호
 박승달 김성혁 정원희 정원호 김호석
 최성원 이향원 박성준 노기남 박경용
 김기태 김기훈 김정욱 오윤상 김상곤
 이용호 조영명 이상훈 황준식 윤성근
 박동수 윤정현 백순 박한진 김충섭
 현인영 우성수 윤지현 유성계 김영수

전두현

2품 (Second Poem)

성언용 이규태 조일상 박현 이종호
 박영철 이상현 심재문 양구영 장익중
 최성용 김호섭 김경욱 김이훈 김동준
 윤찬호 이호영 허태환 장민석 이근영
 서현철 이장열 정범수 조창완 임윤규
 백한기 김상욱 박민서 장경석 황규욱
 서범식 강영규 정인환 김찬 이혁재
 김원 김태준 서우걸 이차열 이호성
 김성수 반용병 오준하 양재용 염기훈
 김국용 박승근 변규대 박치상 임도균
 최철웅 오태용 정성일 신동현 안영철
 김진우 이영상 천우필 한명욱 함양규
 박선형

3품 (Third Poem)

신길호 김창근

제45회 승품심사 합격자(75년 12월 14일)

(The 45th Poem-promotion test)

1품 (First Poem)

김필영 최충식 강종현 엄창용 정준우
 김인환 김주환 김명철 김대영 김상열
 민철홍 이진희 유열 방석환 이상환
 박장호 김거용 김종선 송승항 변상일
 황성철 김보근 홍성민 채호수 전성오
 권순호 이재영 이창훈 김동진 이주상
 조경태 김정재 김철환 조석주 강지성
 김평희 배장열 박병언 이형근 장준호
 진효섭 이재호 임성빈 홍성남 구종삼
 최창보 진용복 배규완 정윤석 이철민

김영완 정운석 김우진 박찬순 정종현
 김종배 서영술 임연택 김연우 박동서
 손계열 오철근 심재욱 최진혁 노명윤
 황성일 김동영 최병영 홍성욱 김호영
 최남수 임재우 이부창 심희숙 이주현
 전성근 이대용 김태백 김수동 엄진섭
 이항규 박은진 김진석 이만중 유주현
 양정철 민현준 이종기 이선욱 민정선
 한대진 이재환 지상일 김우진 변장섭
 정진만 김남진 전동열 지선용 유동균
 황성수 김재우 김영하 박영민 김청환
 조용일 이중형 김진식 윤승준 김정환
 김진영 노지환 김정익 홍성진 김종순

김남옥	김창석	김진완	김동근	김시현	김진균	박성식	김종수	임정목	최학규
송승엽	권순용	박인춘	윤경철	이덕용	윤준상	이봉고	김정일	조홍성	강태욱
김영철	민경일	김형근	서효원	양윤모	신동호	김민찬	홍세운	최세훈	한경남
김영수	윤번석	김덕원	유성곤	김광원	신창균	김영수	주영훈	서철원	이재원
김철용	김민수	천용국	서영수	우남일	이승희	송재선	김인수	정용진	김인석
김경연	이정훈	김태종	김상욱	오귀열	오현철	홍기현	임한수	범광웅	범광일
이병진	김영민	노준호	연혁진	변대열	이태희	김동율	김학준	김윤택	이지수
이영득	변규형	김성훈	조원민	배일곤	송태정	신동수	전용호	김지태	한상호
이동준	김종호	서상일	정성진	이한승	남윤기	황호재	이광현	박상용	이필운
남연우	김동모	송병준	이중협	이종욱	박찬일	문동희	박효상	남정호	권용주
심규환	김동준	서영민	이형규	김민규	김대윤	김의영	김인호	강득기	권희호
서성욱	현동훈	백인복	이상배	정연대	김경태	김진	김병국	이한기	여효동
김정현	지은배	최종국	이명재	김명구	김명국	지성태	지성철	김영준	이윤빈
김양기	이주봉	태성	김명일		이형주	편명빈	정재욱	신현탁	권효규
김상용	박병선	이우석	송강은	안근식	최재식	최선필	서대원	이기섭	백천
신상목	박상준	성기호	김윤희	오광석	최정수	주오민	조승현	이석우	이종수
태장익	김국재	이태환	강동훈	남광현	최일규	황찬욱	유인왕	정진영	최일환
김영진	박제원	윤정중	이재훈	김수철	고병철	김주철	오진석	김범준	이한주
신효철	문형선	김경철	손귀남	이용갑	홍영기	권태희	김병도	차주현	이준열
여윤수	박종성	김미경	홍순성	김대유	김기환	신우인	장길영	허영만	노재영
이성욱	민덕기	김호식	김영철	변호석	문홍식	김지성	김호	이준석	송용기
송영석	남창길	김철현	배희동	김정학	허신종	이철호	최영재	서상민	오형진
김원중	신귀석	박기환	정순주	김봉근	손기민	서범석	이경민	남성우	김봉환
장태석	김인식	김창석	김영일	이상구	이승용	장동훈	김준동	김영환	황형준
이영성	황세현	강준구	손인구	박인철	이우범	조양	박봉수	한석훈	이석휘
이판용	권용필	오명훈	전승주	이진환	이증구	김태곤	김일환	배준성	구본수
전광봉	유원섭	권상학	박우일	장순천	김용균	김영진	이영근	강한성	박종화
권기선	김기호	엄태훈	김진섭	이기식	이성진	김영상	김경태	최인철	유주형
강연수	최용철	김현유	심민섭	조종호	이영욱	김태원	박찬호	신정천	이진우
고성호	이재일	박성용	조영선	이규영	장계운	김중섭	김영보	김영보	이영석
이주원	이춘식	박동재	엄태석	김광민	유정환	김기호	김희준	이한걸	유승형
박진영	서해국	정홍주	배운학	이주휘	배재희	안창호	최현석	이승현	김현배
김찬우	배기문	박정희	신재빈	정재원	김용철	김진수	유호진	최성기	김태균
문동현	정래준	백훈기	이태훈	김찬구	윤정현	현락훈	이용국	이기정	윤덕삼
유태화	선우창수	김일수	한동훈	전정수	송용	주석중	강서기	김영수	박진균
황준성	최인	손강식	박광원	정현철	이장희	임희춘	이용	이병규	이대정
박동화	김형목	박용경	김성태	손기선	이성열	장경순	김동복	김우균	이성휘
이종호	전홍석	한상희	이정우	김진완	박영택	최필구	김화신	조광천	김영언
임지상	김형진	홍영선	이준범	이창선	김광섭	김동국	정석현	박성균	이용권
홍진승	한규용	조경인	이상현	이창현	권병두	장홍일	권경안	신병윤	이윤택

<합격자 명단>

조강철 박정근 오창열 송지훈 박준균
장현수 김진태 길재영 심 용 김병희
안민철 문석배 이용식 박철현 문병연
주용진 윤동준 장우석 이상민 조대일
이석우 신익수 조현득 이양진 김종수
손범수 전현렬 설경천 서동진 황선재
조대호 김재민 김진학 이기정 김용범
김종엽 이재삼 한순홍 김병주 손인호
윤호상 김재현 조연명 최의동 오충식
김용엽 서형곤 백경현 김진욱 박준형
설상욱 나문호 이진용 백양현 손보경
방만규 김상균 김도영 서준호 최용모
임정원 이용태 원진선 김덕규 최승룡
김우권 이상엽 김석진 권희범 신현만
유준길 김종국 김광경 권순일 강성수
신동선 남장호

정용욱 김종훈 이상욱 박준영 백성빈
윤상근 장두종 한재영 여인수 이진서
조영훈 이성식 안성식 정호윤 한상영
최승규 권택선 안경승 윤오필 김선영
조정원 송기환 조민규 박상욱 정창훈
송원석 장동식 강대성 민태경 박일명
김태원 박홍남 박경준 장승태 홍성우
김승재 이찬영 서승봉 이상경 이화섭
김태승 이정진 윤상희 최중호 양의열
김종인 김장호 송현종 김성용 노진기
김남호 인해진 인수태 정병호 김동찬
이재선 이정호 성재현 장재원 김승한
이종상 박현일 한충호 김삼인 백경현
권봉혁 이철희 김지태 이육순 이종선
홍성철 김정식 함종덕 김인석 심규석
박정환 안규환 한영환 차준원 한 욱
김광수 박상현

2품 (Second Poom)

고유화 장선재 오영석 이도연 윤영로
신승국 서 영 김두환 유해민 김경석

3품 (Third Poom)

유정호 남원석 김성민 전종진

제46회 승품심사 합격자(76년 1월 18일)

(The 46th Poom-promotion test)

1품 (First Poom)

임윤상 이도재 김동호 임찬우 배진영
최석우 최병재 김종우 유도현 조종권
박동원 유한철 이재용 전종규 배선영
백인권 최규돈 박찬곤 배영수 노민보
김상범 신영호 오승엽 송인문 정의권
이정훈 김현규 이민호 이세원 박준용
이정훈 허 진 임종빈 박용우 김선태
최호근 박홍서 이준기 김진용 박지훈
노태균 유흥상 임철준 배준상 한규역
김성준 유동욱 김형건 최홍열 이용하
원찬재 권오진 김영민 이승렬 박은철

황민수 민기호 이대섭 허주희 이상석
우한균 노기환 김재민 신용도 신철호
강성산 강석우 박준홍 윤승진 장호석
손정목 서형석 김현철 박재범 심경희
심경희 송주환 김승태 진석모 박세현
장상민 김완희 김연호 김학균 김철희
김홍석 남준모 강지환 박용덕 이창용
함윤석 신동국 오종술 홍성원 하순희
신동석 김진우 신승호 한영석 박대권
오종식 김범수 조성배 서영열 김기형
김태영 이순구 이학주 원용준 주영호
정연재 박범규 이학주 이효찬 정영욱
임영빈 정원민 진인진 이일선 최진호
이병호 장정환 안정호 김기풍 주영덕

<합격자 명단>

최천규 신동욱 정근표 박찬준 이경엽
 안병창 김상준 안내연 현종열 신광수
 이덕우 정철규 정인권 김문기 이승섭
 김태준 심우창 황민하 김덕성 이현우
 김영철 한대성 신철종 이상열 김호일
 전태범 김종민 손태언 송하봉 장 준
 김영철 박현창 김일구 엄 현 김형정
 이태준 김종훈 강석호 김정현 최우범
 장재계 박기형 임형찬 오영환 조남현
 이정근 강원희 강홍규 백인상 이형승
 김용기 정경운 안승현 신현석 이재학
 송기형 김준형 황규민 홍성준 임성원
 서화진 홍성현 최성규 이광철 오병찬
 이광석 안동현 김선학 임세진 심양기
 이 린 이상운 이동주 김웅성 김종필
 김용필 고근목 우제홍 이준원 최성욱
 이상민 김형준 김현준 최진규 박승일
 한정훈 이재원 설인철 김현준 임우재
 박영진 이광영 김신권 이대성 이영창
 박종훈 김금수 우광영 진홍식 김종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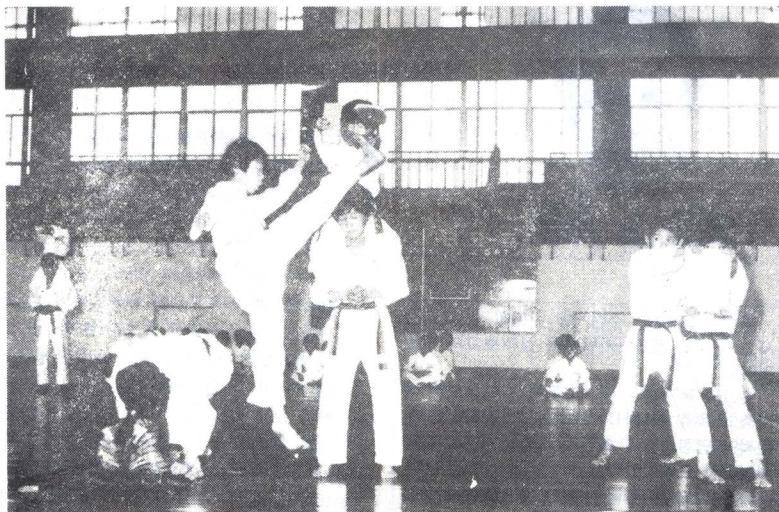
박진우 고석완 안솔발 이환대 강현덕
 이정수 조형진 서종록 김창우 김윤배
 양중혁 정종욱 엄범섭 김한샘 이교승
 심용기 박동운 윤주석 권혁병 이준호
 정재욱 최창범 김석보 유승상 방성호
 김상진 조원덕 송진수 양재혁 김선국
 안 혁 염신준

2품 (Second Poom)

박영일 사성용 박광선 이현구 백인기
 진봉상 최봉상 최성복 김인겸 최호상
 강남선 안영환 정규원 전윤석 이덕재
 이상철 엄규정 강영철 조영철 조형곤
 박광욱 정원섭 이영재 홍재근 오동근
 김태호 윤배근 진명범 강신호 신인철
 박용완 송상현 정영진

3품 (Third Poom)

박호근



跆拳道研究

간단한 응급처치

— simple first-aiols —



한국산업은행기술부 金 高 中

필자약력 1961 : 전북대학교 태권도부주장
1973 : 태권도협회 6단(No. 554)
現 : 한국산업은행기술부 기술역

본고는 태권도 수련시에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응급처치방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의 독자층을 중·고등학생 이상으로 독자층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설명하였고 전문적인 명칭사용과 이론적 배경설명은 가급적 피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필요불가결한 용어는 한자로 병기하여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10여년 전 아주 추웠던 새벽운동시간으로 기억된다. 내가 운동하던 도장의 수석사범 지시에 따라 새벽반의 거루기를 지도하고 있던 중 갑자기 한수련생이 옆치기에 맞아 쾅하며 쓰러졌다. 쫓아가 보니 입에서, 거품이 나고 눈은 온통 흰 창이며 몸을 비틀고 있었다. 같이 있던 수련생은 물론이며 나도 내심으로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지도를 맡고 있는 나 자신이 당황하면 그수련생의 생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다시 한번 그 수련생의 상태를 냉정히 관찰했다.

전문의사가 아니지만 딱딱한 마루에 넘어져머리가 부딪혔는지 뇌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아 지체없이 지정병원의 문을 두들겨 전문의사의 적절한 치료를 받아 완쾌하였다.

지도를 맡고 계시는 사범은 물론이며 상당기간 동안 태권도를 수련한 사람은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두번 이상을 갖고 있을 줄로 믿는다.

하물며 수련도중 코피가 난다던지, 기절을 한다면, 또는 남심을 맞아 덩구는 일은 매우 자주 발생하는 사고로서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여 준다면 의사의 도움없이도 쉽게 치료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무도(武道)에는 살법(殺法)과 활법(活法)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정신적 수련이 보다 더 중요함을 말한다. 여기서 태권도 수련시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사고를 처리하는 방법을 몇가지 설명하여 지도사범은 물론이며 유단자 정도면 사고발생시 직접 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몇가지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1. 코에서 피가 날때

코피가 나는 원인은 심장병, 고혈압등이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는 태권도수련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생략하고 타박에 의한 코피의 출혈이 발생하면 어린이의 경우에는 우선 안정을 시킨다. 왜냐하면 아무일도 아닌데도 어린이들은 피를 보면 놀라기 때문이다. 심리적 안정조치를 하고 콧구멍을 탈지면으로 가볍게 막은 다음 엄지손가락으로 코의 좌우를 지긋이 잡시 동안 눌러 준다. 그래도 코피가 멈추지 않을 때에는 찬물을 적신 수건을 이마와 콧등에 얹어 놓고 턱을 쳐들게 하고 왼손바닥은환자의 이마에 대고 오른손의 엄지손가락 끝으로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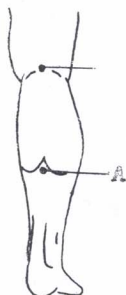
(그림 1)의 점을 지긋이 3번 정도 눌러 준다.

(그림 1)의 점은 머리를 뒤로 젖힐 때 목뒤부분의 오목한 점으로 동양의학의 침술에서는 아문(臨門)이라 일컫는 곳이다.

보통 코피가 날 때 머리를 뒤로 젖히고 손날로 목덜미를 가볍게 두드리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으나 이 방법도(그림 1)의 점을 누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세게 치면 그 충격으로 코피가 더 나올수 있으므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2. 다리에 쥐가 날 때

태권도등의 운동은 여러시간 동안하게되면 종아리(下腿部)의 근육(腓腸筋)이 갑자기 쥐가 나는 경우가 있다. 쥐라는 것은 경직성 경련(痙攣)을 말하며 일단 심할 경우에는 신체의 윗부분쪽으로 번지는 수가 있고 아픔이 심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 특히 격렬한 운동을 하는 사람은 적어도 한 두번씩은 경험한 사실이 있을 정도로 자주 발생한다.



(그림 2)

쥐가 났을 때는 환자를 업드리게 하고(그림 2)의 A, B를 각각 3회씩 엄지손가락으로 세게 눌러준다. 한번 눌러주는 시간은 5~6초 정도로 한다. 쥐가 난 종아리근육은 다른 쪽에 비하여 딱딱하게 경직이 생기므로 A, B 점을 각각 눌러 준 후에 양손바닥으로 힘껏 비비듯이 종아리근육(腓腸筋)을 주물러 주면 경직도 풀리고 근육통증도 사라진다. 덧붙여서 발목을 회전시키고 앞뒤로 당겨주면 훨씬 빨리 회복된다. 일단 종아리근육의 경직만 풀리면 즉시 운동을 다시해도 재발하지 않는 것이 매우 신중한 일이다.

(그림 2)의 A점은 발꿈치를 들고 서면 종아

리 뒷면에 사자가 생긴다. 그 사자의 만나는 점을 눌러보면 매우 아픈곳이 있다. 한의에서는 이곳을 승산(承山)이라 한다.

B점은 무릎 뒷쪽에 있는 오금의 한가운데 눌러서 통증을 느끼는 곳이다. 한의에서는 이곳을 위중(委中)이라 한다.

3. 염좌(捻挫), 탈구(脫臼) 및 골절(骨折)이 발생했을 때

염좌, 탈구 및 골절은 스피드와 파워어가 필요되는 운동을 할때 많이 발생하는 사고라고 할 수 있다.

탈구와 골절의 경우는 심각하므로 정형의과나 접골원으로 즉시 환자를 수송해야 하나 사고현장에서 적당한 응급처치를 하면 치료효과를 좋게 할 수 있고 그 상태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이 응급처치의 기본은 「압박」 「고정」 및 「냉각」으로 출혈을 방지하고 관절에 붙어있는 인대(靭帶)의 손상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다.

또한 환부(患部)를 외부로 노출시키고 다리걸 골시에는 절대로 건게 해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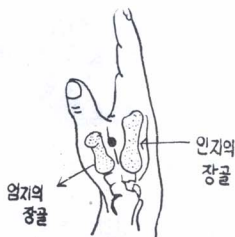
염좌는 빠였다고 말하는 상태로서 관절이 있는 곳은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 운동시에는 팔목관절, 팔꿈치 관절과 복사뼈의 관절에 많이 발생한다.

가. 팔목관절이 빠였을 때

(그림 3)의 점과 빠인 부분에서 아픈곳을 찾아 약간 통증을 느낄 정도로 5~6초씩 3회 누른다. 2~3일 정도 계속한다.

(그림 3)의 점은 합곡(合谷)이라 하는 곳으로서 엄지와 인지가 갈라지는 곳에서 환자의 인지 중간 마디 폭의 2배 거리에 있는 점이다. 누를 때는 인지쪽의 뼈를 향해 누르면 매우 아픈곳이 있다. 통증이 있는 곳이 바로 그 점이다.

덧붙여 찬물 찜질도 같이 한다.



(그림 3)

나. 팔관절이 빠였을 때

(그림 4)의 점과 빠인 부분에서 가장 아픈곳을 찾아 약간 통증을 느낄 정도로 약 5~6초씩 3회 누르고 찬물 찜질할한다.



(그림 4)

(그림 4)의 점은 한의에서 곡지(曲池)라 하는 곳으로 그림과 같이 팔을 구부리면 안쪽에서 밖으로출이 생긴다. 그 줄의 제일 끝 부분을 누르면 통증을 느끼는 곳이 바로 그 점이다.

다. 발목관절이 빠였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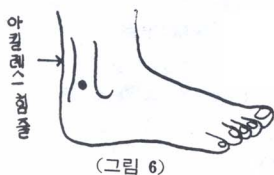
(그림 5)의 점과 (그림 6)의 점 및 빠인 부분에서 가장 아픈곳을 찾아 약간 통증을 느낄 정도로 약 5~6초동안 3회씩 누르고 찬물 찜질한다.

2~3일 정도하면 부었던 곳이 쉽게 가라 앉으며 통증도 살아진다.



(그림 5)

(그림 5)의 점은 한의에서 해계(解解)라하여 (그림 6)의 점은 곤륜(崙崙)이라 한다. (그림 5)의 점



(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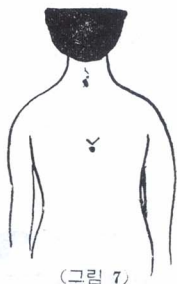
은 발목을 앞으로 구부리면 접히는 중간에 있는 점으로 통증이 있는 점이며 (그림 6)의 점은 바깥 쪽 복사뼈와 아킬레스힘줄 사이에 오목들어가고 통증이 있는 곳을 말한다. 위의 3점을 전의 방법과 같이 누르고 찜질한다.

폐인 자리는 빨강게되어 드디어 청자색으로부어 아프게 되나 이상과 같은 조치를 하면 쉽게 완치할 수 있다.

4. 낭심을 채였을 때

수련 도중 특히 겨루기 때는 상대방의 낭심(臍丸)을 차거나 채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심사때는 비교적 사고율이 적으나 경기 때는 사고율이 높아 낭심을 맞고 덩구는 현상을 자주 본다. 일단 사고가 나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맞은 사람은 쓰러지게 된다.

이때는 즉시 환자를 눕히고 도복 띠를 풀 다음 고환이 복부내로 들어갔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들어 갔을 때는 아랫배를 손으로 눌러 물어 내리면 대부분의 경우 나온다. 들어



(그림 7)

가지 않았을 때는 음낭(陰囊) 후단과 항문(肛門) 사이의 중간 점을 지긋이 3~5초동안 3회 정도 누른 다음 필요에 따라 환자를 앉히고(그림 7)의 점에 무릎을 대고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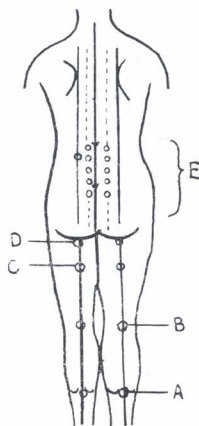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조치 외에 (그림 8)의 점을 엄지손톱으로 강하게 눌러 주면 더욱 좋다.

(그림 8)의 점은 태돈(太敦)이라 하는 점으로 엄지발톱 바로 옆의 위치이다.

5. 허리가 무거웁거나 아플 때

일반적으로 요통은 척추질환 및 내장에 이상이 생길때 발생하는 통증을 말한다. 요통을 다시 크게 분류하면 허리자체의 이상에 의한 요통과 다른 부위의 기관 또는 그 기능이상에 따라 발생하는 요통이다.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특별한 병인(病因)에 의한 요통은 제외하고 태권도 수련 중 파로 또는 경미한 타박등에 의한 일시적인 요통으로 운동후 간단한 조치를 하므로써 시원한 쾌감을 느끼면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그림 9)

우선 환자를 엎드리게 하고 (그림 9)에 표시된 점들중 좌측점을 3~5초 동안 지긋이 힘을 주어 눌러 주고 다음에는 우측점을 3~5초 동안 같은 방법으로 3회씩 눌러 준다. (그림 9)의 A점과 B점은 (그림 2)와 같은 점으로 여기서는 정확한 위치설명을 피한다.

D점은 불기의 정계가 되는 설의 정

중양점으로 승부(承扶)라고 불리우며 C점은 D점과 B점의 중간에 위치한 곳이다. 이곳은 은문(殷門)이라고 한다. E점들은 각점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치료할 때 찾을 수 있는 방법만을 설명한다. 척추뼈의 정중앙선을 염두에 두고 그 선의 좌우 3cm 정도 떨어진 곳을 손끝으로 눌러보면 오목 들어가며 감각이 민감한 곳을 찾을 수 있다. (그림 9)에 표시된 점선을 위로부터 아래로 좌우점을 교대로 약 5초동안 힘을 주어 3회씩 눌러 주면 매우 시원한 느낌을 알 수 있다.

6. 기절(氣絶)하였을 때

기절은 다른 용어로 졸도라고도 한다. 수련도 중 타박에 의하여 졸도하였을 경우에 치료할 수 있는 2가지 방법만을 소개한다.

가. 인중(人中)누르기

인중은 (그림 10)의 점을 말하며 매우 중요한 급소 중의 하나이다. 이 곳은 외부로부터 심한 타박을 받으면 시각기능상실(視覺機能喪失)과 호흡장애(呼吸障礙)등으로 즉사하는 점이나 인사불성(人事不省) 또는 기절했을 때 인중을 적당히 누르거나 두손가락 끝으로 세게 꼬집으면 깨어나는 곳이기도 하다.



(그림 10)

이곳을 누르거나 꼬집을 때는 환자를 의자에 앉히거나 머리가 뒤를 보게 눕히고 한다.

(그림 10)점은 코밑과 윗입술 사이의 코랑 중앙선 약간 윗쪽에 위치한다.

나. 회음(會陰)누르기

회음의 위치는 남심을깨이었을 때도 누르는 곳으로 음낭(陰囊)후단과 항문(肛門)사이의 중

간점을 말한다 이곳을 3~5초동안 엄지손가락 끝으로 3회정도 조금 세게 눌러주면 인사불성이나 기절에 깨어 날 수 있다.

또한 (그림 11)의 점을 몇 번 눌러 주면 효과가 좋다.

이 점은 발바닥 앞부의 오목들어 가는 곳으로 한의에서는 용천(湧泉)이라고 부르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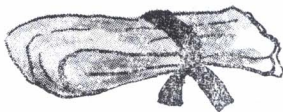


(그림 11)

맺 음

태권도 수련이 발생할 수 있는 몇가지 사고에 대한 간단한 응급처치방법을 소개하므로써 태권도인의 건강은 물론이며 태권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건강에 까지도 도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 하여 경험과 선배나 책을 통하여 얻은 응급처치 방법 중에서 유단자 이상이면 쉽게 익혀 사용할 수 있는 몇가지만을 소개하였다.

다만 기절하였을 때 미숙한 사람이 너무 시간을 오래 끌면 환자의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태권도 지도의 일반원리

Principles in teaching Taekwondo



육군사관학교 체육학처 교수

芮 鍾 二

필자약력

1965 : 陸軍士官學校卒業

1969 :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體育學科卒業

1971 : 서울大學校 大學院 體育科卒業

現 : 陸軍士官學校 體育學處 專任講師

序

人類的 起源과 함께 生命을 保存하려는 本能的 欲求充足의 수단으로 闘技가 생겨나 環境과 文化의 양상에 따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地域的, 民族의 特質을 지니고 여러 形態로 發展해 오면서 跆拳道는 우리 民族의 文化와 環境속에서 組織化되고 體係化되는 과정을 거쳐 오늘날은 어느 武道보다도 現實의이고 科學的인 武道로서 각광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跆拳道人에게는 이를 열심히 修練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으며 精益求精 跆拳道의 宗主국으로서 계속 研究發展 시키고 올바르게 지도하여 全世界文化로 飛躍시키고 계승하여야 할 使命感이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跆拳道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도하는데 도움이 될까하여 教育的 側面에서 指導의 原理를 序說로서 간추려 보고자 한다.

跆拳道는 한마디로 教育的의 한分野인 體育의 領域에 속하는 것으로서 過去의 教育觀에서 이른바 「스콜라」哲學은 人間의 肉體的인 面을 무시하면서 精神的인 面과 知的인 面을 찬양하였고 「메카르트」哲學은 精神과 肉體를 분리하여 생각

하고 肉體는 精神의 노예로서 그 支配를 받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禁慾主義는 영혼과 신체를 반대의 위치에 놓고 前者를 찬양하기 위해서는 後者를 무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엄격한 自己否定的의 態度를 취했으며 主知主義教育은 마음의 教育을 尊상하게 됨으로써 體育 그 自體가 사생아처럼 멸시와 학대를 받아 教育적영역에서 제외된 시대도 있었으나 실천과 행동을 절대 필요로하는 오늘날의 教育에서는 體育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확대됨으로써 體育의 科學的 研究領域이 형성되고 이를 지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指導方法에 대한 研究를 보아 절실히 요구하게 되었다.

1. 指導의 意義

우선 體育指導라함은 단순한 身體活動의 技術을 指導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體育의 目標가 指向하고 있는 人格陶冶와 自主的인 人間育成을 위한 精神教育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제 跆拳道가 속하는 教育적영역이 명확하고 教育의 方法이 개선됨에 따라 師範 또는 指導란 말은 새로운 意

昧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跆拳道를 지도하는 師範의 任務는 技術指導가 全部가 아니며 人格을 形成하고 民主市民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精精教育和 生活適性으로서의 신체 단련과 健康增進을 전제로한 훌륭한 技術을 지도하는데 있다. 즉 「指導」는 「教育」과 유사한 말로서 環境을 조성하고 動機를 유발시키며 學習에 대한 刺戟을 주어서 修練生이 갖고있는 潛在力을 최대로 발달시켜 주는 일이다. 그러므로 民主主義 指導法은 過去의 指導法과 같이 師範의 知識이나 기술 및 행동에 대한 모방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理想的인 社會生活을 할 수 있도록 修練生이 指向하고있는 目標에 가장 가까운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方向을 제시하여 주고 行動으로 助力하여 주는 활동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兒童이나 成人을 막론하고 道場내에서의 올바른 思考와 行動方向을 유도하여 효과적인 人格陶冶와 技術習得을 통한 體力向上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도장밖의 生活속으로 까지 移轉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주어야 한다.

2. 指導의 原理

어떠한 科目이나 運動이건 간에 하나의 學習 활동으로서 이를 指導할 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一般의 指導原理를 들 수가 있으며 教育 또는 指導란 것은 學習活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學習者」와 「場」과의 力動的인 관계로 보아 결코 注入式이나 강요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가. 自己活動의 原理

學習活動에서 무엇보다 중요시 되는 것은 학습과 自身の 自發인 自己活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훌륭한 方法으로指導를 했다고 해도 그것을 學習하고자 하는 意慾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시간과 노력의 낭비만을 가져오게 된다. 이처럼 學習者 自身の 活動과 노력은 중요시 하는것은 DEWEY의

教育思想에 근거한 것으로서 특히 肉體의인 노력을 요구하는 跆拳道의 學習은 자발적인 活動을 기술원리로 삼지 않으면 쉽게 疲勞와 倦怠를 느끼게 되고 그릇된 行動과 기술의 習慣을 形成하기 쉽다.

나. 個別化의 原理

이는 學習者가 지니고 있는 요구와 노력에 알맞는 機會를 만들어 주고 學習者의 소질을 최대한으로 발전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跆拳道 指導에 있어서도 남보다 뛰어난 사람은 계속적인 發達을 조장할 수 있는 充分한 機會를 마련해 주고 빠른 速度로 높은 水準의 기술을 指導하여 주며 그와 반대로 運動技術이 열등한 사람에게는 그들의 要求水準에 알맞는 내용과 方法을 적용시킴으로서 個別化를 完成할 수 있을 것이다.

다. 社會化의 原理

跆拳道는 하나의 社會化過程 즉 人間關係를 보다 높은 水準으로 맺어 나갈 수 있도록 人格을陶冶시키고 社會性을 배양하며 體力向上 및 自己保護의 技術을習得하는데 있다. 따라서 跆拳道수련은 단순히 個人活動으로서만이 아니고 社會關係와 연관성있게 행하여 지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미련 跆拳道 수련을 통하여 길러진 바람직한 習慣과 態度를 道場밖 社會生活에 까지 轉移시키도록 하는것을 하나의 目標로 삼고 있는 것이다. 즉 道場에서 배양된 忍耐力, 自制力 協同心과 謙讓의 精神은 自主의인 民主市民의 精神으로 轉移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社會化는 前項의 個別化와 調和를 이루면서 指導되어 나갈 때 跆拳道 修練의 教育的 價値가 나타난다.

라. 力動的인 “場”의 原理

力動的인 “場”이라함은 雰囲気 또는 過程의 原理를 말하는 것으로서 아무리 自發性이 중요시 되고 個別化와 社會化를 꾀하려 하여도 修練의 場이 적절히 마련되지 않으면 최후의 成果는 거

둘 수 없다. 따라서 動機유발과 衛生的이고 安全한 環境을 위한 적절한 施設과 用具를 갖추는 것은 修練雰圍氣 造成에 중요한 役割을 한다.

3. 跆拳道 指導의 目標

指導者는 우선 教育的 立場에서 指導의 目標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目標에 부합되는 指導計劃을 수립하고, 指導內容과 方法을 선택하여야 한다. 또 모든 教育이나 訓練은 그 科目이 設定한 目標에 가장 효과적으로 到達할 수 있도록 教育者와 被教育者의 노력이 集中되어야 하며 師範의 指導目標은 곧 修練生의 修練目標이 될 것이므로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가. 身體教育의 領域

- 1) 自己保護를 위한 身體部位의 鍛練과 護身技術을 높일것.
- 2) 健康을 增進하고 體力向上을 도모할것.
- 3) 生活適性으로서의 技術을 높일것.
- 4) 身體의 均衡있는 發達을 도모하고 身體各器官의 生理的 機能을 높일것.

나. 精神教育의 領域

- 1) 人格을 形成하고 社會性을 높일것.
- 2) 情緒的, 心理的 安定을 도모할 것.
- 3) 知的, 判斷力과 應用力을 배양할 것.
- 4) 跆拳道精神을 生活속으로 轉移하여 民主市民으로서의 道德과 規範 그리고 生活態度를 형성할것.

이와같은 身體 및 精神教育의 目標는 跆拳道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涵養될 수 있으므로 指導者는 修練生이 이 目標를 指向하도록 修練의 方向을 定해 주며 도와 주어야 한다.

4. 指導의 方法

跆拳道를 통하여 動的健康과 護身 및 生活에

필수적인 身體技術을 체득시키고 人格形成과 社會性을 효과적으로 배양시키기 위해서는 科學的이고 단계적인 指導를 필요로 하며 修練內容이 個人的 能力과 素質에 적합하고 指導方法도 順他的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즉 個人的 條件, 個人的 要求를 考慮하면서 指導方法을 선택하고본 위기를 조성하는 일은 指導의 技術이며 요건이기도 하다.

가. 練習의 效果

跆拳道 指導時에 계속적인 反復練習만으로는 “身體運動의 練習原理”에 의하면 계속적인 技術增進을 가져오지 못한다. 즉 修練의 反復회수에 따라 기술의 발달정도에는 差異가 있으며 때로는 기술향상이 잠시 停滯되는 時期를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이와같이 練習을 계속하여도 기술의 향상이 停滯되는 것을 “스럼프”(SLUMP)라고 하며 스텝프가 비교적 長期間 계속되어 進歩가 극히 부진한 時期를 “高原”이라 하고 아무리 練習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向上을 期待할 수없는 時期에 이르면 이를 “生理的 極限”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와같은 스텝프가 생기는 原因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內的 要因

가) 作業 즉 學習內容의 한 部分에 극단적으로 마음이 끌리게 될때.

나) 作業活動時 두가지 以上の 要因사이에서 注意가 動搖되고 있을때.

다) 作業活動中 여러가지 要因의 협조에 注意를 集中시켰을때.

라) 두가지 이상의 活動事아에서 相互作用에 의하여 스텝프에 빠지는 境遇가 있다.

2) 外的 要因

가) 感情의 緊張狀態가 계속될때.

나) 生理的 極限에 到達했을때.

다) 外部環境의 條件.

라) 身體的인 條件을 들 수가 있다.

위에서 말한 “스럼프” “고원” “生理的 極限”을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으나 指導者는 이러한

시기를 조속히 發見하여 指導方法, 指導內容 環境 등을 적절히 개선하여 指導에 임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기술의 進步가 없는데도 계속적인 修練을 하게 되면 興味를 잃고 倦怠를 느끼게 되어 動機를 喪失케 되므로 精神의 疲勞가 누적되어 運動技術 向上은 勿論 精神修養에도 障礙가 되기 때문이다.

나. 練習의 方法

學習을 위한 練習의 方法에는 어떤 動作이나 內容을 全體의으로 하느냐 部分的으로 나누어 하느냐에 따라 全習法(WHOLE-METHOD)과 分習法(PART-METHOD)으로 區分할 수 있고 일정한 修練時間을 休息없이 계속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集中法(MASSED-PRACTICE)과 分散法(DISTRIBUTED-PRACTICE)으로 나눌 수 있다.

1) 全習法

이 방법은 어떤 學習內容을 全體의으로 反復練習하는 方法이다.

2) 分習法

이 방법은 學習內容을 部分的으로 나누어 練習하는 方法이다.

가) 純粹分習法: 몇개로 분할된 작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숙달시킨 다음에 전체를 統合하는 방법이다. 이를테면 주먹과 발이 동시에 움직이는 복잡한 품의 練習시에 먼저 발동작을 익히고 다음에 주먹의 움직임을 익힌다음 발과 주먹의 동작을 동시에 연습하는 방법이다.

나) 漸進分習法: 여러개로 분할된 分節을 수 개씩 종합하여 연습하는 방법으로서 이는 매우 복잡한 내용을 연습할때 효과적이므로 跆拳道지도시에는 별로 必要性을 느끼지 않는다.

다) 反復分習法: 이는 처음에 한 分節을 연습하고 다음에는 첫 分節을 포함해서 다음 分節까지를 反復해서 연습하는 방법이다. 예를들면 27개 동작으로 된 品勢가 있다면 이를 3개의 分節로 나누어 처음에는 1~9까지를 연습하고 다음에는 1~18까지를 마지막으로 1~27까지를 反復연습하는 방법이다.

跆拳道 指導時 간단하고 쉬운動作이나 품의指導時에는 全習法이 좋고 品勢練習時는 처음에는 全習法보다 反復分習法을 사용하는 것이 品勢進行線 및 動作의 暗記에 용이하다.

3) 集中法

이 방법은 修練時間동안 休息을 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연습하는 방법이다.

4) 分散法

이 방법은 修練道중에 休息時間을 허용하면서 연습하는 방법이다.

集中法은 疲勞를 수반하기 쉬운반면 分散法은 反應의 고정효과가 나타나기 쉬우므로 分散法을 적용할때 休息時間을 너무 길하게면 技術의 要領을 忘却하거나 興味를 잃기 쉬우므로 어느 정도의 水準에 도달할때까지는 休息時間의 장단을 고려하여 指導하여야 한다. 또한 分散法은 疲勞를 회피하고 注意力이 증가되며 修練過程의바람직하지 못한 自己動作을 反省하고 矯正할 수 있는 機會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 集中法은 바르지 못한 동작을 도리어 강화시켜 버리는 경우가 있으며 疲勞로 인하여 動機의 유발작용이 저하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集中法은 倦怠期를벗어난 有段者나 體力이 우수하고 발진속도가 빠른 修練生과 修練時間이 짧을때 효과적이며 兒童, 女子, 老人, 身體虛弱者 및 스럽스에 빠져 있는 사람이나 修練時間이 90분 이상일 때는 分散法을 이용함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5. 指導上的 有重點

跆拳道의 특징에 비추어 教育的 側面에서 指導者가 有意하여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修練生을 主體로 삼아야 한다.

이는 지도자 보다는 修練生의 立場을 중요시하여 指導方法, 指導內容, 指導順序 및 注意事項 등이 修練者의 立場에서 立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指導者는 修練生의 自發的인 行動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는 民主主義教育의 특징으로서

修練生 自身이 自發的이고 積極的으로 참여하고 목표를 向한 올바른 方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修練生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줌으로서 그 효과를 증진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다. 跆拳道의 특수성을 考慮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跆拳道는 일반 스포츠와는 다른 武道임으로 護身技術과 健康增進 그리고 精神面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영역에 바람직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指導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指導者는 跆拳道의 科學的 價値 즉 運動力學的, 生物學的, 心理學的, 背景과 役割에 관해서 까지 깊이 研究하여야만 참다운 指導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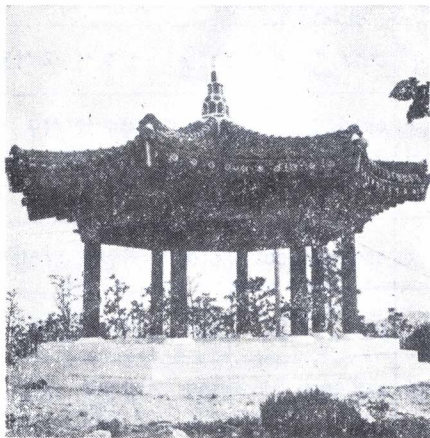
라. 指導條件을 적절히 改善하고 管理하여야 한다. 이는 修練生에게 신체적으로 안전하고 衛生的인 環境을 제공함은 물론 心理的 情緒的 安定을 유지할 수 있게 되도록 세심한 注意와 管理가 必要하다.

마. 修練場面을 면밀히 觀察하여 나타나는 誤謬를 矯正하여 주고 修練過程에서 協力, 助言者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運動의 量과 質이 修練者의 能力, 素質, 準備性(REDINESS)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관찰하여야 하며 관찰의 결과에 따라 指導方法을 강구하여 能力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修練過程에서 적절히 協力, 助言하여 積極的으로 修練에 임할 수 있도록 激勵하여야 한다.

바. 修練 및 審査結果를 반드시 評價하여 修練生에서 알려 주어야 한다. 이는 修練生으로 하여금 자기의 잘못을 是正하고 練習意慾을 증진시켜 주는 要素가 된다. 만일 아무리 노력하여도 向上速度가 停滯될 경우에는 반드시 沮害要因이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運動刺激이 과했던가 혹은 身體的, 心理的, 社會的 여전과의 不調和가 반드시 있을 것이므로 指導者는 이러한 要因을 정확히 發見하여 다음 指導의 새로운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結

跆拳道는 教育의 領域中 體育의 分野에 속하므로 教育의 一般原理에 입각하여 指導되어야 한다. 즉 指導者, 修練者 그리고 修練의 “場”이 調和를 이룬 가운데 指導者는 修練生 個個人의 要求를 존중하면서 그들의 潛在力을 발전시키는 勿論 自己保護, 生活適性으로서의 身體技術의 습득과 創造의인 市民으로서의 人格陶冶를 위하여 協力, 助言者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指導者는 대상에 적합한 指導計劃을 수립하여 指導內容, 方法, 順序등을 결정하고 環境改善등 철저한 指導準備을 갖추고 指導者 自身의 科學的 知識과 敎養을 쌓는데 부단히 노력하여 명실공히 師範으로서의 役割을 다할 수 있을때 跆拳道는 더욱 發展되고 世界文化로 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시·도 지부 연맹 주소록

지 부	전 화 번 호	주 소	회 장	전무이사
서울	261-8872 273-3464	100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65-13	엄운규	송봉섭
부산	051 25-1303	600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210	김무룡	이도운
대구	053 33-7284 해) 33-3261~4	635 대구직할시 북구 고성동 3가 6번지	김창홍	도상근
인천	031 883-1989	160-01 인천시 남구 송의1동 424 공설운동장내	안대균	전태구
경기도	0331 41-8074 해) 4-2678	170 수원시 매산로 3가 32 - 7	이형재	안종용
강원도	0361 3-3578	200 춘천시 낙원동 64 - 2 동일빌딩 3층	김성태	박병철
충북	0431 2-4098	310 청주시 서문동 218 - 11	전운덕	정만순
충남	042 22-0119 해) 22-4966	300 대전시 동구 중동 27-13 금성당 5층	한용석	이진수
전북	0652 75-1610	520 전주시 고사동 1가 428-8	최용복	장한철
전남	06266-6922	500 광주시 서구 구동 9번지	김정주	박창용
경북	053 33-3615	635 대구시 북구 고성동 3가 6번지	염길정	예조해
경남	0551 93-2005	610 마산시 양덕2동 477 마산종합운동장내 경기단체합동사무실	이순달	김선규
제주도	0641 7-2195	590 제주시 삼도2동 45-2 대한화재보험내	정룡사	신상은
대학연맹	462-4707	135 강남구 역삼동 834 대선빌딩 201호	김한주	최인범
중고연맹	593-6597	135 서울 강남구 방배동 750-10	김명호	김인수
국고연맹	753-1776	100 중구 북창동 북창별관 124-101	이상빈	주상일

跆拳道 품세教室

TAEKWONDO ILLUSTRATED

太極 五 場

TAE-GEUK 5 JANG

제공 : 교육문화위원회

태 극 5 장

태극 5장은八卦중 손(巽)을 응용한 동작이다. 손(巽)은 (부호≡) 바람을 상징한다. 바람이 불고 또 부는 상태를 표현한다.

태풍, 삭풍, 광풍, 회오리등 사나운 바람도 있다 그러나 바람의 본성은 착한 것이다. 봄날의 고요한 미풍은 늘어진 실버들가지를 어루만질뿐 결코 그것을 꺾는법이 없다. 바람은 겸손한 마음을 상징하고 몇번이고 성의있는 행동을 거듭하는 상태를 표현한다.

이 품세의 진행은 바람처럼 곧고 단조로운가 하면 질풍처럼 강하고 굳세게 변화한다. 동작 초반에 옆으로 피주먹 내려치기와 후반에 팔굽치기로 진행된다.

품세선 :八卦의 손(巽)

품 수 : 20

동작수 : 32



준비서기 : "I"(나)의 위치에서 "G"(가)바라보며 기본준비서기로 선다.

Spread the left foot one step sidewise and face the direction of "G"

PYENHI SEOGI Seogi GIBON TUNBI



1. 몸을 "L₁"방향으로 돌리면서 왼앞굽이로 아래 막기

Turn the body to the left and Move the left foot to the line of "L₁"

PYENHI SEOGI ARAEMAKKI

※ "아래막기"에서 왼손목을 안으로 틀면서 잡아 끌어 몸에 스치며 팔굽을 왼채로 원을 크게 그리며 위에서 부터 내려친다. 이때 원을 적게 그리거나 팔굽을 꾸부렸다 피거나 "등주먹"으로 "바깥치기"를 하는 요령으로 하면 안된다.

아울러 아랫도리 왼발을 끌어 드리는것과 발의 내려치는 동작이 일치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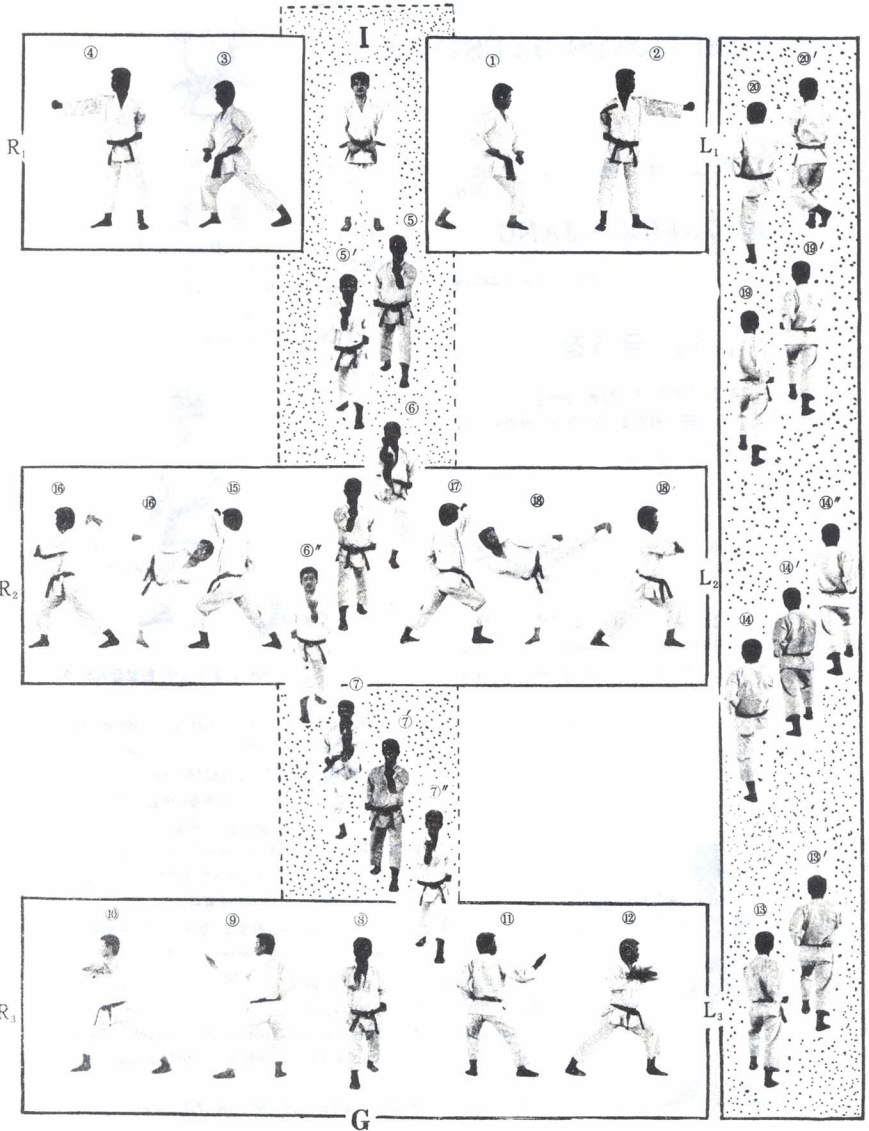
2. 오른발제자리 왼발을 약간 끌어

왼편이 서기로 외주먹내려치기

Raise the body dragging the left foot with the right one fixed and draw a large circle with the left arm pulling and touching the body slightly

PYEONHI SEOGI MAE JOOMEOK NAERYO CHIGI

품세진행선





4. 원발제자리 오른발을 약간 끌며 오른편이서기로 오른외주먹 내려치기

Raise the body dragging the right foot with the left One fixed and draw a large Circle with the right arm Pulling And touching the body slightly.

PYEONHI SEOGI MAE JOOMEOK-NAERYE CHIGI

3. 시선을 오른쪽 "R₁"으로 돌리며 원발제자리 오른발 약간 나가며 오른앞굽이 아래막기

Pivoting on the ball of the left foot turn the body to the right and Move the right foot to the line of "R₁"

OREUN APKOOBI ARAEMAKKI



5. 오른발 제자리 원발 "G"선상에 한걸음 내딛어 왼앞굽이로 몸통막기를 하고 계속하여 몸통안막기

※ 몸통막기와 몸통안 막기를 연속으로 한다.

Move the left foot to the line of "G" with the right one fixed.

OEN APKOOBI MOMTONG MAKKI MOMTONG ANMAKKI in succession

6. 원발제자리 오른발 앞차기 차고 "G"선상에 내려딛어 오른앞굽이로 등주먹 앞에치기 계속하여 몸통안막기를 한다.

Do Apchagi with the right foot and drop it (On the line of "G")

OREUN APKOOBI OREUN DEUNG JOOMEOK EOLGOOL APE CHIGI and then MOMTONG ANMAKKI



⑦



⑦



⑦

7. 오른발 제자리 왼발로 앞차기를 차고 "G"선상에 내려들어 왼앞굽이로 등주먹앞치기를 하고 계속하여 몸통안막기

Do Apchagi with the left foot and drop it (On the line of "G")

OEN APKOOBI OEN DEUNG JOOMEOK EOLGOOL APE-CHIGI and then MOMTONG AMN AKKI



⑧

8. 왼발제자리 오른발 "G"선상에 한걸음 나아가 오른앞굽이로 등주먹 앞치기

Move the right foot One step forward (On the line of "G")

OREUN APKOOBI OREUN DEUNG JOOMEOK APE-CHIGI



⑨

9. 오른발 축으로 몸을 왼쪽으로 돌려 왼발을 선 "R₃"상에 딛고 오른뒷굽이로 한손날 몸통옆막기 (시선 R₃ 방향)

Pivoting On the ball of the right foot, turn the body to the left and move the left foot to the line of "R₃"

OREUN DWIKOOBI OEN HANSONNAL MOMTONG BAKAT MAKKI



⑩

10. 왼발 제자리 오른발 "R₃"선상에 한걸음 나아가 오른앞굽이로 몸통 팔굽돌려치기

※ 팔굽돌려치기를 할때 거드려주는 마음으로 왼손바닥으로 오른주먹을 싸서 가슴앞에 멈춘다.

Move the right foot One step forward (On the line of "R₃")

OREUN APKOOBI OREUN PALKOOP MOMTONG CHIGI



11. 왼발 제자리 몸을 오른쪽으로 돌려 오른발을
“L₃”선상에 옮겨들어 왼뒤굽이로 한손날 몸통옆막
기

Turn the body to the right with left foot fixed
and Moved the right foot to the line of “L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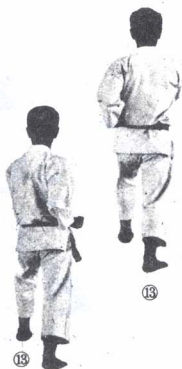
OEN DWIKOOBI OREUN HANSONNAL
MOMTONG BAKAT MAKKI



12. 오른발 제자리 왼발 “L₃”선상에 한걸음 나아
가 왼앞굽이로 팔굽몸통돌려치기

Move the left foot One step forward(On the
line of “L₃”)

OEN APKOOBI OEN PAL KOOP MOMTONG
CHIGI



13. 오른발 제자리 몸왼편으로 돌려 왼발 “I”선
상에 옮겨들어 왼앞굽이로 아래막기를 하고 몸통안
막기

Pivoting On the ball of the right foot, turn the
body to the left and move the left to the line of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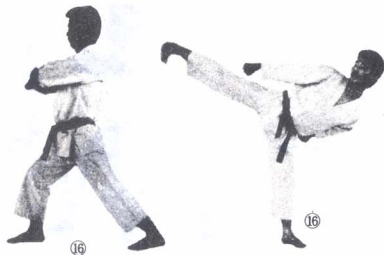
OEN APKOOB MOMTONG ANMAKKI after
ARAE MAKKI



14. 오른발 앞차기 차고 “I”선상에 내려들어 오른
앞굽이로 아래막기하고 몸통안막기

Do Apehagi with the right foot and drop it
(On the line of “I”)

OREUN APMAKKI MOMTONG ANMAKKI
after ARAE MAKKI



16. 왼발제자리 오른발로 옆차기를 차고 내려딘
이 오른앞굽이로 팔굽표적치기

※ 옆차기를 할때 주먹도 같이 뺀 경우가 많은
때 다음 동작이 팔굽표적치기가 있을 경우에만 옆
차기와 주먹지르기를 동시에 한다. 그렇지 않고 다
음 팔굽치기 동작이 아닐 경우에는 주먹을 가슴앞으
로 끌면서(즉 상대를 잡아 끌면서) 옆차기를 찬다
태극 4장에 제 6 동작과 제 7 동작과 같은 경우이다

Do Yeopchagi With the right foot and drop it
(On the line of "R₂")

**OREUN APKOobi OENPALKOOPMOMTONG
YOJEOK CHIGI**



15. 오른발 제자리 왼발을 "R₂"선상에 한걸음 나
가 왼앞굽이로 얼굴막기

Move the left foot to the line of "R₂" Keeping
the right foot fixed

OEN APKOobi EOLGOOL MAKKI



17. 왼발 제자리 몸을 오른쪽으로 돌려 오른발을
"L₂"선상에 옮겨 얼굴막기

Pivoting on the ball of the left foot, turn the
body to the right and move the right foot to the
line of "L₂"

OREUN APKOobi EOLGOOL MAKKI

18. 오른발 제자리 왼발 "L₂"선상에 옆차기를 차
고 내려딘이 왼앞굽이로 팔굽표적치기

Do Yeopchagi with the left foot and drop it
(On the line of "L₂")

**OEN APKOobi OREUN PALKOOP PYOJEOK
CHIGI**



그런, 오른발 축으로 몸을 왼쪽으로 돌려 "G"방
향을 향하여 기본준비서기

Divoting On the ball of the right, turn the
body to the left and fac: the direction of "G"

PYENI SEOGI



(19)



(19)

19. 오른발 제자리 몸을 왼쪽으로 돌려 왼발을
"I"선상에 옮겨 왼앞굽이로 아래막기하고 몸통안막
기

Pivoting on the ball of the right foot, turn the
body to the left and move the left foot to the
Line of "I"

OEN APKOOBI MOMTONG ANMAKKI after
ARAE MAKKI



(20)



(20)

20. 오른발 앞차기 차고 뛰어나가 오른발 뒤통으로
잡지면서 뒷꼬아서기로 등주먹앞에치기

※ 이때 기합을 낸다.

Do Apchagi with the right foot and drop One
step forward (On the line of "I")

OREUN BAL DWIT KOASEOGI OREUN DE-
UNG JCOMEUK EOLGOOL APE-CHIGI (yell)

1975년도 대의원총회

The 1975 General Meeting of National delegates

모든 태권도인들은 호국의 선봉에서 반국가적, 반사회적, 반태권도적 부조리를 일소하고 태권도의 세계화와 국민총화 진전에 단결된 힘을 발휘하여 줄것을 당부했다. (김운용회장의 신년사에서)

"I ask you to eliminate all irregular and unhealthy practices around you in your effort to make Taekwondo a great sport of the world. And I ask you to stand at the foremost front in displaying united strength in 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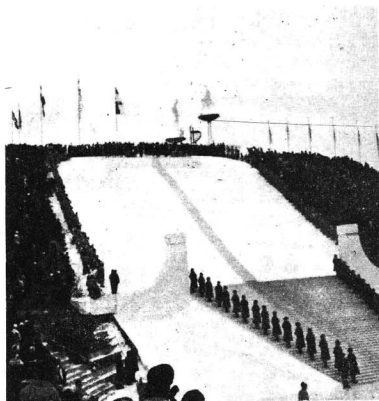


1975년도 대의원 총회가 1976년 1월 17일 대한체육회 대강당에서 열렸다.

1975 Annual Conference of National Delegates of the Korea Taekwondo Association was held at K.A.S.A auditorium on 17 January 1976.



김운용 총재 동계올림픽 한국 회의대표로 참석



Ice stadium에서 NOC대표와 IOC위원들과 함께
NOC representatives and IOC members
at Ice stadium in Innsbruck.

동계 올림픽 Ice stadium에서 (우로부터 미국 올림픽
위원장 Philip O. Krumm씨, 국제수영연맹 회장
Harold Henning씨 내외)
At Ice stadium

From right: Mr & Mrs Philip O Krumm, U.S.
Olympic Committee President,
Mr & Mrs Harold Henning. President of Intern-
ational Swimming Federation.



동계 올림픽 개회식

Opening Ceremony of XII Winter Olympics
in Innsbruck.



국제군인체육회 사무총장 Raoul Mollet씨와 함께
With Col. Raoul Mollet, Secretary General of
C.I. S.M



Mr. Un Yong Kim, President of KTA, attended the IIX th Winter Olympics in Innsbruck representing the Korean Olympic Committee.

München에서 태권도 사범들과함께, 김희장 우측이 장기영 I.O.C위원
With Instructors in München. At right of K.T.A President is Mr.Chang Kee Young, I.O.C member.



김희장은 Tyrol주 부지사 Prior씨에게 감사장을 수여
WTF President Kim presented letter of appreciation to Mr Fritz Prior, Deputy Governor of Tyrol.

동계 올림픽 한국선수단
Korean Team to XIIth Winter Olympics in Innsbru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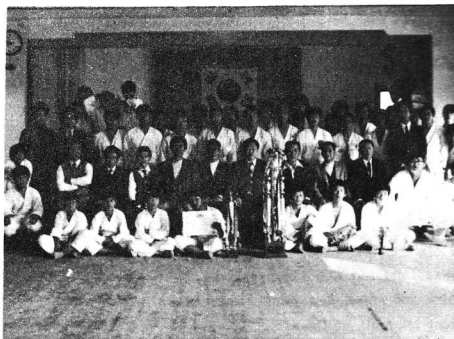
오지리 태권도협회 임원들과 태권도 문제 협의
Meeting with officials of Austrian Taekwondo association.



"재일동포의 태권도 소식"

大板 한국학원과 京都학원의 친선태권도
경기 대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Korean Residents Association in Japan,
after the goodwill matches.



가족 스포츠로 각광받는 태권도는 미국의 오래
근주의 Mahony가족을 흑띠로 만들고 있다.

Mahony-Taekwondo family in Oregon(from
left:Mahony and his wife, son & daughters.)

승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수련생들
과 함께 기념 촬영을한 장영보 사범(우익) 뒤에
태극기 옆에는 국기원기가 선명하게 걸려있다.
(타이티)

Instructor, Chang Young Bo (exte-
meright) is photographed with his
trainees who displayed out standing
performances in the Geup promotion
test. The Korean National Flag and
the Flag of Kukkiwon are seen clearly.



이디·아민 우간다 대통령에게 도복과
흑띠를 전달하는 김남석사범

Taekwondo diplomat Kim Nam Suck presents
a uniform and a black belt to his Excellency
President Idi Amin of Uganda.



터키 태권도선수권대회가 수도 앙카라
에서 열려 성황을 이루고 있다.

Taekwondo Championships in Ankara,
Turkey.



태권도 수련에 여념이 없는 미국의
젊은이들.

Taekwondoist in the United States
are active in training with the
youngsters.



태권도 기초체력 단련 계획을 연구중인
Clark Hatch 씨에게 감사장 수여
Leter of appreciation is Presented to
Mr. Clark Hatch of Clark Hatch
Physical Fitsners Center.

1975년도 태권도 최우수선수선발대회 National Taekwondo Competitions for the best player of the year 1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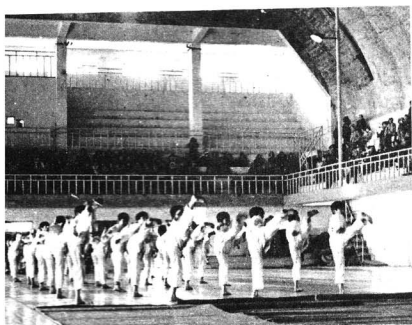
옆차기를 시도하는 오유열 선
수에게 재빠른 동작으로 견제하
는 오민환 선수.
takes a defense posture swiftly
in response to a side kick by
Oh You Yeul.



제1회 전국국민학교 태권도선수권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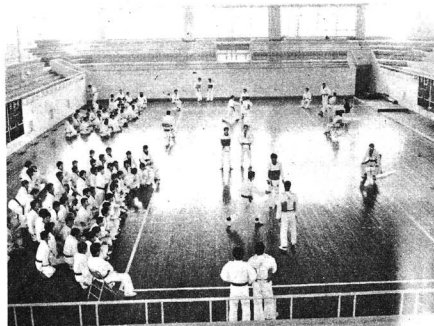


푸라이급 이진양의 옆차기 공격
에 주춤하는 김승현선수(준결승
전)
Flyweight Miss Lee Jin atta-
cks hesitating Kim Sung
Hyon with a side kick in the
(semi-final game.)



서울외국인학교 1,500여명이 남대문국민학교 어린이
태권도 시범을 관람하고 있다(2.20)

Demonstration by Namdaemoon Primary School
team the American Elementary School in Seoul.



제11기 3급 심판강습회 실기장면

Practical session at the 3rd class referee Course.

제15기 지도자교육을 마치고……

Graduation ceremony of the 15th
Instructors' training course.

